

## 남가주교협 수석부회장에 강신권 목사 임명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제45대 수석부회장에 강신권 목사가 임명됐다. 이로써 지난해 11월 3일 제45차 총회 이후 8개월 만에 남가주교협은 수석부회장을 임명하면서 자기 리더십에 대한 부담을 상당 부분 덜게 됐다. 강 목사는 오는 제46차 총회에서 큰 이변이 없는 한 회장에 오르게 된다.

강 목사는 “이민교회가 하나님 말씀 전수와 세계 선교를 위해 전략적으로 연합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남가주교협이 교단과 기독교 기관, 모든 분들을 위한 모임이 될 수 있도록 큰 우산이 되어 남가주 사회와 미국을 세우는 데에 쓰임받기 원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지난 제45차 총회에서는 제44차 총회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수석부회장 출마자가 없었고 이는 남가주교협에 큰 위기감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이런 이유로 제45차 총회에서 총회원들은 아예 공천이나 투표의 모든 절차를 생략하고 신임회장 최혁 목사에게 수석부회장 임명에 대한 전권을 위임했다.

7월 20일 남가주교협 임원들이 참석한 월례회에서 최혁 목사는 강신권 목사를 수석부회장에 임명한다고 발표했다. 그는 “강 목사는 코헨신학대학교의 설립총장으로서 전 세계 복음화에 앞장서고 있기에 남가주교협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사역에 중추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목사는 “수석부회장 문제를 놓고 고심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가’를 후보의 첫 번째 기준으로 두었다”고 설명했다. 또 강 목사에 대해 “남가주교협의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면서도 마음이 나뉘어져 있는 교계 여러 기관과 단체를 아우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이날 임원회에서 최 목사는 강 목사가 수석부회장이 되기 위해 제출한 필수 서류인 이력서, 목사안수증, 교단 추천서, 3,000달러 공탁금을 임원들에게 공개한 후, 강 목사의 임명을 확정지었고 임원들은 반대 없이 박수했다.

이 서류들에 따르면, 강 목사는 1954년 생으로 현재 해외한인장로



7월 20일 남가주교협 사무실에서 열린 월례회에서 강신권 목사가 수석부회장에 임명됐다. 사진 앞줄에 앉은 이들이 회장 최혁 목사(좌)와 수석부회장 강신권 목사(우)다.

## 총회 후 8개월 만에 공식 문제 해결

회(KPCA) 소속 세계성경장로교회 담임목사로 28년째 시무 중이다. 대구교대, 영남대 행정학과를 졸업했으며 청년 시절 예장 통합측 청년회 전국연합회와 한국기독교청년협의회 회장단으로 섬긴 바 있다.

미국으로 유학 온 후에는 펜실베이니아에 소재한 페이스신학대학원에서 M.Div.와 Th.M. 학위를 받았고 이후 성경장로교단(The Bible Presbyterian Church)에서 1987년 목사로 안수받았다. 이 교단은 1924년 미국 북장로교의 자유주의화에

대항해 1929년 웨스트민스터신학교를 세웠던 존 그레삼 메이첸 박사를 중심으로 한 보수공동체에서 유래했다. 이 공동체로부터 1936년에는 정통장로교단(The Orthodox Presbyterian Church)이 설립되고 1937년에는 성경장로교단이 설립됐다.

강 목사는 목사 안수 후에도 학업을 멈추지 않아 캘리포니아신학대학원에서 Ph.D., 페이스신학대학원에서 Th.D. 학위를 받았고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에서 D.Min. 학위도 받았다.

현재 속한 교단 KPCA 내에서는

서노회장, 총회 교육부장, 평신도위원장, 헌법위원장을 거쳤고 최근엔 총회장 후보로도 출마한 바 있다.

대사회적으로는 4.29 LA 폭동 직후 박희민 목사와 함께 한흑기독교연맹을 설립해 인종간 화합을 도모했으며 현재도 이 단체 상임대표로 있다. 인천광역시 국제교문, 나눔과 기쁨 미주본부 상임대표이기도 하다.

교육 분야에서는 페이스신학대학원 서부캠퍼스 학장을 지냈고 현재 코헨신학대학교 설립총장이다.

김준형 기자

## 미주 한인 2세들 “북한을 위한 목소리” 외쳤다!



약 80여 명의 한인 2세들이 워싱턴DC에서 북한 인권 컨퍼런스에 참석했다.

통곡기도회와 각종 행사로 북한 인권 개선에 앞장서고 있는 KCC가 지난 7월 13일부터 16일까지 워싱턴DC에서 한인 2세 대학생과 고등학생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북한 인권 컨퍼런스를 열었다.

이 컨퍼런스에서 참석자들은 4일 동안 의회와 백악관을 방문하는 한편, 기도회와 집회로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이 행사에서 개최 메시지를 전한 댄 남 목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북한을 위한 목소리를 내기 원하신다”라며 참석자들을 독려했고 행사 기간

중에는 탈북자와 북한 인권 전문가들이 참석해 생생한 강의를 전했다. 특히 에드 로이스 하원의원, 북한자유연합의 수잔 솔티 대표 등 주류 사회의 인사들도 대거 참석해 큰 관심을 보였다.

참석자들은 미국 정치인들을 향해 ‘북한 제재 이행 법안(H.R.757 North Korea Sanctions Enforcement Act)’의 의회 통과를 호소하고 ‘북한 어린이 복지법(H.R.1464 North Korea Child Welfare Act)’에 대해 미 행정부의 구체적인 행동을 촉구했다.

문순현 기자

다음 주는 정기 휴간입니다

ASO 나라정비 타이어 대리점  
**GOOD YEAR**  
 유럽차전문점  
 SMOG CHECK  
 범퍼·도어·바디복원·무료견적·Rent Car  
 323.734.4881 | 월~금: 8am~6pm / 토: 8am~5pm 1201 S.Western Ave, LA 웨스턴과 12가

최상의 호스피스 서비스를 사랑으로 제공합니다.  
 의사, 간호사, 간호보조사, 소셜워커, 성직자, 자원봉사자 등이 직접 방문하여 도와드립니다.  
 정부인증기관으로 환자분에게 금전적부담이 없습니다.  
 24시간 대기 서비스 제공  
**시에라 호스피스 케어** 박영심 간호부장  
 www.sierra-hospice.com Tel: (213) 380-1100 Cell: (213) 700-6989

Earn your Associate degree in just ... **ONE YEAR!**

**LAORT COLLEGE**  
 WE PUT EDUCATION TO WORK

- Accounting
- Business Management
- Administrative Assistant
- Phlebotomy
- Medical & Clinical Assistant
- Medical Office Management
- Pharmacy Technology Administration
- Digital Media
- Computer Aided Drafting & Design (CADD)
-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ESL)

한국어 상담 그레이스(Grace)  
 직 통 : T(213)703-6863  
 Office : T(323)966-5444

**WE OFFER:**

- Financial Aid and Scholarships are available (for those who qualify)
- Job and Career Placement Assistance
- Day and Evening Assistance
- Transportation Assistance
- Student Visa Assistance
- Accredited by ACCET

**LAORT.EDU**  
 800 NON-PROFIT SCHOOLS WORLDWIDE  
**1.800.998.2678**

**SAN FERNANDO VALLEY CAMPUS**  
 14519 SYLVAN STREET  
 VAN NUYS, CA 91411

**MID-WILSHIRE CAMPUS**  
 6435 WILSHIRE BOULEVARD  
 LOS ANGELES, CA 90048



# 벤추라카운티에 주님의교회 창립돼

## 19일 창립 및 임직 감사예배 드려

벤추라카운티 소미스 지역에 주님의교회(담임 오정택 목사)가 지난 19일 창립되면서 동시에 임직 감사예배를 드렸다. 이날 예배는 비가 오는 가운데에서도 기독교대한감리회 관계자, 벤추라카운티 지역 한인 목회자와 성도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지성은 목사(새생명교회)의 사회로 드려진 이날 예배에서 남강식 목사(기감 남가주북지방회 감리사)는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본문으로 “주님이 세우신 교회”라는 설교를 전했다. 그는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주님의교회가 서게 됨을 감사한다”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향기가 넘쳐서 세상에 수많은 지친 영혼을 인도하는 주님의교회가 되라”고 전했다.

이어 남강식 목사는 설립 예식에 따라 주님의교회가 기독교대한감리회 미주특별연회 남가주북지방회 정회원으로 가입함과 창립됨을 선포했다.

이어 홍상욱 장로와 선인순 권사가 임직했고 예배에 참석한 목회자들이 축복하며 안수기도했다.

예배 중 축사를 전한 윤일흠 목사(비전50선교회 대표간사)는 “십자가의 도 위에 세워진 주님의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증인이 되어 힘써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가 되라”고 전했다.

박광철 목사(조이헬로교회)는 임직자들에게 전한 격려사에서 “우



강 샘 전도사, 오정택 담임목사, 오희경 사모, 홍상욱 장로

###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수많은 영혼 인도하길”

리 모두는 영적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면서 “주님처럼 가장 낮은 곳에 자원해서 기쁨의 마음으로 사역을 감당하라”고 말했다.

오정택 담임목사는 “남가주에 극히 이례적으로 여름에 소나비가 왔다”면서 “마치 우리의 갈급한 심령에 내리는 단비와 같았다. 창립까지 많은 고난과 아픔도 있었으나 더 큰 기쁨과 감사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예배에서는 벤추라카운티 목회자 연합 목회자부부 특별 헌금송도 이어져 이날 예배에 은혜를 더했다. 오정택 목사의 광고 후, 김민영

목사(벤추라감리교회)의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쳤다.

한편, 오정택 목사는 이날 교육전도사로 강 샘 전도사를 임명했다.

오정택 목사는 감리교신학대학을 졸업하고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에서 신학 석사, 탈봇신학대학원에서 기독교교육학 석사, 클레어몬트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 박사를 마쳤다.

기감 측에서 안수받고 공군 군목을 지냈으며 한국 광림교회 청년부 목사, 로스앤젤레스연합감리교회 부 목사, 웨스트레이크한인교회 담임을 거쳐 현재 주님의교회를 담임하고 있다.

# 광복 70주년, 분단 70주년 기도회

## Adopt 815 중심으로 동양선교교회에서



한인 2세들을 중심으로 북한과 통일을 위한 기도회가 오는 8월 15일 열린다. 이 행사를 알리는 기자회견에 (왼쪽 세번째부터) 임혜빈 회장, 그레이스 유 씨, 박형은 목사 등이 참석했다.

한인 2세들을 중심으로 북한을 위한 기도회가 오는 8월 15일 LA 한인타운 한복판에서 열린다. 광복 70주년, 분단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지난해 한인 2세들이 발족한 Adopt 815가 이 행사를 주도하고 있다.

오전 6시 30분 웨스턴 길과 올림픽 길이 만나는 곳에 위치한 코리아타운 갤러리아 마켓에서 새벽기도회가 열리고 이어 오후 2시부터는 북한 관련 워크숍들이 진행된다. 워크숍 장소는 참석 인원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웹사이트 www.adoptaday.com에 공지될 예정이다. 저녁 7시에는 동양선교교회에서 집회가 예정돼 있다.

이 행사를 알리기 위해 7월 15일 열린 기자회견에는 KCCD의 임혜빈 회장, 전 LA 시의원 후보 그레이스 유 씨, 동양선교교회 박형은 목사 등 한인사회를 대표하는 2세권

인사들이 참석했다. 특히 박형은 목사는 “그동안 1세들이 중심이 된 북한 기도회는 종종 있었지만 2세들이 주최하는 기도회는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그레이스 유 씨는 “한인 2세와 3세들은 북한과 관련해 정치적, 역사적 내용을 잘 모른다. 이번 집회가 한인들에게 북한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키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 행사 중 워크숍에서는 북한 관련 사역을 하고 있는 레아 인터네셔널(REAH International), 사마리아인의지갑(Samaritan's Purse), 유진 벨재단(Eugene Bell Foundation), 호프포오프렌스(Hope for Orphans) 등의 관계자들이 참여해 메시지를 전하게 된다.

일련의 행사 중 새벽기도회는 한영 이종언어로 진행되고 나머지 행사들은 모두 영어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윤형 기자

# “라면에 사랑을 담아 전했습니다”



OC교협이 지난 부활절 예배 헌금으로 라면을 구입해 타민족들에게 전달했다.

## OC교협 부활절 예배 헌금으로 타민족 섬겨

오렌지카운티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김기동 목사)가 지난 9일 미주비전교회(담임 이서 목사)에서 7월 정기 월례회를 마치고 타민족에게 ‘사랑의 라면’을 나눴다. 지난 OC 부활절 연합예배 시 나온 헌금 전액으로 라면을 구입해 어려운 가운데 있는 12군데의 타민족단체와 교회에 700상자, 4,200개의 라면을 전달할 것이다.

김기동 목사는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에 한 그릇의 라면을 통해서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 라면은 어려움과 사랑과 나눔의 상징이다. 이민 와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타민족에게 따뜻한 사랑을 나누고자 하는 목적으로 행사를 준비했다”고 전했다.

월례회는 심상은 목사의 사회로 남상국 목사의 기도, 이서 목사의

‘기도와 사역자’란 제목의 설교, 박용덕 목사의 축도로 진행됐다. 사랑의 라면 나눔 행사는 박재만 목사의 사회, 김기동 목사의 인사 말씀이 있던 후 타민족 단체와 교회 대표들이 나와서 간단히 사역을 소개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었다.

이번에 라면을 나누는 단체는 라티노교회, 베트남교회, 인도안교회, 흑인교회, 일본인교회, 멕시코 수감자 선교회, 베트남 장애인선교회, 노인선교회, 흠리스선교회 등 다양했다.

# 환태평양 영화제에서 기독교 영화 만나자

기독교 문화 페스티벌 제7회 환태평양 영화제가 오는 8월 6일부터 8일까지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에서 열린다. 환태평양 영화제(Pan Pacific Film Festival)는 지난 2007년부터 미디어, 특히 영화를 통해 복음과 사랑을 전하고자 시작되었으며 금년이 제7회째다. 그동안 할리웃이 위치해 있는 엘에이 근교 극장에서 개최돼 왔으나 금년에는 은혜한인교회에서 열린다. 영화제가 끝난 후 주일(9일) 저녁에는 특별 영화 상영도 계획하고 있다.

금년에는 미국, 한국, 호주, 독일, 홍콩, 이스라엘, 일본, 레바논, 뉴질랜드, 루마니아, 싱가포르, 프랑스 등 12개국에서 총 80편 정도의 크리스천 및 가족 영화가 출품되었고, 총 14개 분야에 걸쳐 수상 후보작이 결정됐다. 최종 수상작들은 8월 6일(목) 저녁 7시 시상식에서 발표된다.

8월 7일과 8일 이틀에 걸쳐 하루종일 30편 정도의 주옥같은 영화들이 상영된다. 또한 40여 명의 강사들로 이루어진 워크숍도 3개 세션

으로 나뉘어져 진행된다. 특히 한국 영화 2개가 상영되는데, 8월 7일(금) 저녁에 ‘The Drop-box’가 상영되고, 9일(주일) 저녁에 ‘더테너 리리코 스피노’가 상영된다. 영화 상영 후에는 귀한 간증을 듣는 순서도 마련된다.

이외에도 가족 간의 사랑 이야기,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광야에서 미술로 표현하며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했던 한 귀인의 실화, 생이 힘들어 자살로 마감하려 했던 한 백인 싱글 여성이 하나님의 사람인 한 흑인과의 만남으로 생이 뒤바뀌게 되는 감동의 이야기, 위탁 가정에서 자라며 겪었던 트라우마와 그것을 회복하게 되는 인생 역전의 이야기 등의 감동적이면서도 특별한 20여 편 이상의 영화들이 상영된다.

워크숍은 주제별로 다양하게 40여 명의 패널들이 나와서 경험을 담은 생생한 강의 형태로 진행된다. 영화제 일정 및 티켓구입 문은 www.panpacificfilm.com으로 하면 된다. 이영인 기자

# 미주 총신대학교 입학/편입생 모집

미주 총신대학교는 장로교 신학교로서 1991년 2월 대한 예수교 장로회(합동) 총신대학교 재단 이사회에서 미주 본교로 인준하였고, 1996년 대한 예수교 장로회 81회 총회의 결정 따라 독립 운영되는 총회 인준 신학교입니다. 본교는 성경 영감성 및 무오성과 칼빈주의 개혁 교리에 기초하여 지금까지 37회에 걸쳐 700명이 넘는 졸업생을 배출한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21세기 교회와 세계 선교 사명을 이끌어갈 목회자, 선교사 그리고 여러 방면의 사명자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김근수 총장은 지난 30년이 넘는 동안 한국 총신대학교와 한국성서 대학교, 칼빈대학교에서 교수하신 개혁주의 신학자입니다.

2015년 가을학기 개강일시: 2015년 8월 24일(월) 오후 7시

## 대학 학과 및 학위과정

전문학사 과정: 여교역학과  
학사과정: 신학전공, 선교학 전공, 기독교 교육 전공, 교회 음악(3학년 편입 모집)

## 신학 대학원/일반 대학원

신학대학원: M.Div.(목회신학전공) - 학사학위 소지자로 세례교인  
일반대학원: Th.M. - 신학 전공, 선교학 전공: M.Div. 학위 소지자  
M.A. - 선교학 전공, 기독교 교육전공 - 학사 학위 소지자



총장 김근수 박사

약력  
미국 남가주 신학대학 Southern California College, B.A.  
한국 총신대학 신학대학원 목회학 석사  
Chong Shin Theological Seminary in Seoul, M.Div.  
미국 칼빈 신학대학원 신학석사  
Calvin Theological Seminary in Grand Rapid, Th.M.  
영국 웨일즈 대학교 대학원 철학박사  
Univ. of Wales Graduate School in U.K, Ph.D.  
경력  
한기람교회 담임역임, 현 한울교회 담임  
칼빈대학교 신학대학원장, 설교대학원장, 대학원장, 부총장역임  
개혁신학회 회장 역임

## 박사과정

- D. Min. - 목회 경력 3년 이상의 M.Div. 이상 학위 소지자
- 1. 학교입학에 필요한 원서와 서류를 학교 홈페이지(www.chongshinusa.edu)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하기 바랍니다.
- 2. 유학생을 위한 I-20 Form을 발행합니다.
- 3. 각종 장학혜택이 있습니다.
- 4. 지역에 따라 타주 또는 타국에서도 통신으로 수업을 받을 수 있습니다.
- 5. 본교는 현재 주정부에 등록된 대학으로 연방정부기관인TRACS에 가입신청 중에 있습니다.



Chong Shin University in U.S.A.

- School of Theology
- School of Christian Education
- School of Mission
- School of Church Music



미주총신대학교

이사장 김연도 박사(D.P.M.)  
총장 김근수 박사(Th.M., Ph.D.)

TEL: 213.487.1010 FAX:213.487.3303  
I-TEL: 070-7019-1011  
2975 Wilshire Blvd.#300, L.A., CA 90010

www.chongshinusa.edu  
e-mail : info@chongshinusa.edu



# 16주년 맞은 울타리 16명에게 장학금 전달

## 한인 청소년에게 300불씩, 총 4800달러

LA에 노숙자와 가난한 이들을 사랑으로 지키는 울타리가 세워진 지 16년이 됐다. 18일 울타리선교회(대표 나주옥 목사) 16주년 감사예배에서는 울타리가 된 사람들이나 울타리 안의 사람들이나 할 것 없이 모두 마음을 모아 가장 큰 울타리인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를 드렸다. 또 16명의 한인 청소년들에게 각각 300달러씩 장학금을 수여했다.

지난 10여 년간 울타리선교회는 20여 명의 한인 위탁가정 청소년들을 맡아 보호해 왔으나 현재는 중단한 상태다. 일반적으로 위탁 청소년들은 18세가 되면 위탁가정을 벗어나야 하지만 울타리선교회는 이 규정을 지키지 못했다. 이 선교회 하나 선교사는 “아들에게 ‘18세가 됐으니 이제 나가라’ 할 수는 없더

라. 나가서 어떻게 살라고? 완전히 자립할 때까지 돌봐야지”라고 말했다. 자식처럼 키운 정과 책임감 때문에 울타리선교회는 위탁가정 사역을 결국 포기했지만 그 사랑을 받고 자란 청소년들이 이제는 성인이 되어, 사업가나 직장인, 군인, 대학생 등으로 사회 곳곳에 나가 있다.

울타리선교회는 이 위탁가정 사역을 중단한 것에 못내 마음 아파하던 중, 이 사역을 장학금으로 대체해서 LA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한인 청소년들에게 전달하자는 비전을 품었다. 16주년이나 16명에게 장학금을 주기로 결정했는데 문제는 돈이 한 푼도 없다는 것. 울타리선교회의 한 후원자가 이 소식을 듣고 10명의 장학금을 후원했고 선교회 이사들이 나머지 금액을 채워 총



18일 오전 사우스 LA 지역에 위치한 선교센터에서 열린 울타리선교회 16주년 감사예배에서 나주옥 목사가 인사하고 있다. 나 목사 뒤에 앉은 이들이 이번에 장학금을 받은 한인 학생들이다.

4,800달러가 마련됐다. 기적이었다. 한편, 예배에서는 남가주동덕과 이어, 배재교당, 최왕성 씨, 미주선농협장단 등이 아름다운 찬양을 불렀고 울타리선교회 소속 흑인들로 구성된 찰스 팀도 흑인 특유의 신나

는 노래로 흥을 더했다. 선교회 대표 나주옥 목사가 고린도후서 4장 5절 성경을 봉독하고 김준식 목사가 “We do it for Jesus”라는 설교를 전했다. 최영길 장로가 기도, 김국진 목사가 축도했다. 장학금 수여 후

는 흥기 목사가 간절히 기도했다. 예배 후에는 남가주살림교회 성도들이 준비한 맛있는 점심으로 모든 이들이 배부른 시간도 마련됐다.

김준형 기자

## 아버지의 변화는 가정의 변화! 목회자의 변화는?



이번 목회자 아버지학교를 준비하는 이들이 20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좌측부터) 이상훈 목사, 이명철 사무국장, 성요셉 목사, 이재근 목사, 박세헌 목사, 김인구 목사.

### LA 제1기 목회자 아버지학교 열린다

“아버지가 변화되면 가정이 변화되고, 목사가 변화되면 교회가 변화된다.” LA에서 제1기 목회자 아버지학교가 열린다. 이 학교 참석자들은 “목회자를 가정의 건강한 아버지로 세우면 그 가정의 변화를 통해 목회 사역까지 건강해질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일단 아버지학교 자체는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다. 1995년 한국에서 시작돼 현재는 국내 77개 도시로 확산됐고 미주 54개 도시, 호주·뉴질랜드·중국·인도네시아·말레이

시아·프랑스·독일·일본·러시아 등 62개국에서 열리고 있다. 총 5,600여 회에 29만5천 명이 참석한 것으로 집계된다. 특별히 미주에서는 한인 2세를 위한 영어권 아버지학교, 타민족을 위한 아버지학교까지 열리고 있다.

아버지학교 측은 목회자 가정의 특수성으로 인해 목회자들만을 위한 목회자 아버지학교를 별도로 열고 있으며 목회자 아버지학교를 수료한 목회자들이 그 다음 목회자 아버지학교를 섬기고 있다.

먼저 김인구 목사는 아버지학교에 대해 “성령 운동, 실천 운동, 교회 연합운동”이라 설명하며 목회자들의 참여를 권했다. 이재근 목사는 “우리는 아버지가 무엇인지 도대체 알지 못하고 아버지가 된 무면허 아버지들인 경우가 많다”면서 “목회자들도 마찬가지로”라고 했다. 이 목사는 “아버지가 변화되면 한 가정이 변화된다. 그러나 목회자가 변화되면 교회 전체가 변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LA 아버지학교 자체는 약 2천여 명이 수료했지만 이제 11기를 맞이한 LA 목회자 아버지학교는 300여 명이 수료한 상태다. 이번 11기는 성요셉 목사의 진행으로 8월 10일(월) 오후 4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1일(화)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16일(주일) 오후 4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30일(주일) 오후 4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동양선교교회에서 열린다. 강사로는 덴버뉴라이프교회 정대성 목사, ANC온누리교회 이준성 선교목사, 시애틀형제교회 권준 목사, 동양선교교회 박형은 목사가 참여한다. 문의) 213-382-5454

김준형 기자

## 동양선교교회 창립 45주년 기념 다양한 행사 준비



동양선교교회가 창립 45주년을 맞이했다.

한인교회는 물론 한인타운의 산역시라고 할 수 있는 동양선교교회(OMC)가 창립 45주년을 맞아 다양한 행사를 연다.

지난 7월 11일 전교인 야외회로 화합을 다진 데 이어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필라안디옥교회 호성기 목사를 초청해 부흥성회를 연다.

이 기간 중 26일 오후 4시에는 창립 45주년 기념식과 축하콘서트를 연다. 이 자리에서는 월드미션대 음악부와 갓스이미지가 공연하며 LA

소방국과 경찰국의 인사들, 풀러신 학교 김세운 교수, 유재환 원서은행장 등 주류 및 한인사회 인사들이 대거 참석할 예정이다.

기념식 후 오후 5시 30분에는 교회 설립자인 임동선 목사를 기념해 “임동선 박사 기념 비전센터”를 개관한다.

교회 측은 “지난 45년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지난 날의 시련과 아픔을 말씀과 기도 안에서 회복해 꿈을 이뤄가는 교회가 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천천히 다 둘러보시고 오세요~  
**당신의 마지막 카드**  
13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인, 찰리 정

**현대 HYUNDAI**  
찰리 정 (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

**새빛한의원**  
Saevit Acupuncture clinic  
213-389-8275  
520 S. Virgil Ave., #305 Los Angeles, CA 90020

**한방내과, 한방성형 & 통증클리닉**  
늘 환자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환자의 몸이 지니고 있는 “자연치유력”을 살려내는 새빛이 되겠습니다.

수술없는 한방 성형  
체진 특성을 올려 젊음 유지  
아름다운 여인이 되어보세요.

**한방감기 특별처방!!**  
(5일분-\$35)

약력 북경중의약대학졸업 전 한외과대학 교수역임(삼라한외대) 교통사고 · 각종보험 · 여행자보험

**탐미디어 여름 정기세일**  
JULY 15 ~ AUGUST 15  
**SUMMER BIG SALE**

SAVE UP TO 30%  
Low Price Guarantee

찰라카피, 책 제본, 교회 차량 스티커, 홍보용 깃발도 탐미디어에서 잘 합니다.  
모든 인쇄물 및 용품의 가격을 현재 가격 보다 더 저렴하게 맞춰 드리겠습니다.

**깃발배너 flag + Pole + Spike 모두 합해 \$100**  
현금봉투 5천장 \$245  
CD Slik print 3천장 슬리브+라벨 포함 \$0.25 (simple color)  
전도용 플티슈 1000장 \$350  
감사패 및 각종 기념패(크리스탈) \$60 (min 2)  
명함 1000장 \$45  
13oz 3' x 10' vinyl Banner \$45 (Design is not include)  
창립기념, 새가족 고급 타올 \$4.8(min50)

**VBS Full Color T-shirt \$4.20(No Set up Fee)**  
**환영 대형스탠드 배너 \$150---\$99**  
**주보 디자인 및 배송포함 2500장 \$390 5000장 \$690**

**SPECIAL DISCOUNT ITEM**  
All Kind Printer / Fax / Copier Ink & Toner & Paper

<p>10% Additional Discount</p>	<b>BLANK CD-R</b> Qty. Unit Price Price 600 \$0.15 \$90 3000 \$0.14 \$420 6000 \$0.135 \$810	<p>10% Additional Discount</p>	<b>PRINTERBLE CD-R</b> Qty. Unit Price Price 600 \$0.17 \$102 3000 \$0.16 \$510 6000 \$0.155 \$930		
	<p>10% Additional Discount</p>		<b>PAPER SLEEVE</b> Qty. Unit Price Price 1000 \$0.03 \$30 6000 \$0.025 \$150 12000 \$0.02 \$240	<p>10% Additional Discount</p>	<b>12 DISK CD ALBUM</b> Qty. Unit Price Price 50 \$0.95 \$47.50 250 \$0.89 \$222.50 500 \$0.85 \$425
			<p>10% Additional Discount</p>		<b>Full Color CD Printing</b> Qty. Unit Price Price 1000 \$0.32 \$320 3000 \$0.29 \$140 5000 \$0.27 \$1350 one color cd printing as low as \$0.25
<p>현금봉투, 배너, 주보, 선물용품 등 다양한 물건 및 디자인 확인은 <a href="http://www.junimedia.com">www.junimedia.com</a> 에서</p> <p><b>www.topmediausa.com</b> <b>TOP MEDIA</b> — MEDIA TOTAL SOLUTION —</p>					

<b>미디어 용품</b> 공시디, 공디비디, 테일라벨, 메일러, 미디어 케이스 및 슬리브, 듀플리케이터, CD 프린터	<b>설교CD, 미디어 제작</b> 소량 및 대량 CD, DVD 앨범 교회 및 기업체 CD 프린팅, 부흥회 및 시리즈 앨범, 설교 CD 최저가 제작	<b>디자인 및 인쇄</b> 대형 현수막 전문 배너, 명함, 포스터, 현금봉투, 주보, 디자인 및 초저가 인쇄	<b>서비스</b> 개최교회 홍보 CD 무료제작, 오디오 비디오 테입 CD로 변환, 듀플리케이터 수리, CD/DVD 대량 복사
--	---	--	---

3170 E. 11th Street. Los Angeles, CA 90023  
**T.323-265-0244** Fax.323.265.0250  
E-mail. topmedia153@gmail.com





소향 콘서트가 남가주 지역 교회를 투어하며 열리고 있다. 사진은 감사한인교회에서 열린 공연 모습.

### 가수 소향 북한 어린이 위해 콘서트 국제하나사랑재단 주최로... 24,25일 공연 남아

국제하나사랑재단이 가수 소향을 초대해 “북한 어린이를 위한 자선 콘서트”를 남가주 일원에서 개최하고 있다. 이미 지난 18일 주님의영광교회, 19일 감사한인교회에서 집회가 있었고 이제 24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엘바인의 디사이플교회, 25일 토요일 오후 7시 로렌

하이츠의 아름다운교회에서 집회를 앞두고 있다. 이 콘서트의 수익금은 북한 어린이들에게 음식과 의약품 전달하는 데에 사용된다. 콘서트에 앞서 소향은 국제하나사랑재단 회장인 임택순 장로와 함께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콘서트의 취지를 설명했다.

소향은 북한선교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동기를 묻는 질문에 “10년 전 하와이 제자훈련학교(DTS)에 초청돼 북한선교에 특별한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 고희원 선교사를 만나면서부터이다”며 “북한 선교에 관심있는 사람들은 많지만 실질적인 행동을 취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다. 이 자선 콘서트를 통해 북한 어린이들을 조금이나마 도울 수 있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북한선교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임택순 회장은 “북한 어린이들의 약 30%가 영양실조에 걸려 있다. 이 아이들을 살리는 것이 진정한 통일을 준비하는 길이다. 실제로 독일의 경우, 아이들을 향한 섬김이 다른 것들에 비해 8배 이상의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왔다”며 “이번 자선 콘서트를 통해 미주지역 교회들과 성도들이 북한 땅과 그 영혼들, 특히 북한 어린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품고 기도하며 동역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문의) 714-991-9887

이영인 기자



SOW의 정기공연이 나침반교회에서 열렸다.

### “SOW와 함께 찬양 뮤지컬 해요”

Seeds of Worship(시즈 오브 워십)의 2015년 정기 공연이 500여 명의 청중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8일 토요일 오후 7시에 브레아에 있는

나침반교회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2010년에 창단해 금년으로 5년째 소년 소녀 찬양 뮤지컬 공연을 하고 있는 이 팀은 올해 약 70여 명

의 단원이 출연한 가운데 “This is Living”이라는 공연을 선보여 큰 박수를 받았다.

이 팀은 2015-2016년 시즌을 위해 새로운 단원을 모집하고 있다. 8월 1일(토) 오디션이 있으며 오디션에 참여하고자 한다면 에스더 박 단장(714-904-8434)에게 전화로 연락해야 한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참여가 가능하다.

오디션을 통과하면 매주 토요일 신앙 훈련과 더불어 찬양, 댄스, 보이스 트레이닝 등 달란트 개발을 위한 집중 훈련을 받게 된다.

연습 장소는 남가주벤티리교회(1201 S. Beach Blvd., #113 La Habra)다.

김준형 기자



새롭게 선출된 예성 미주 서부지방회 임원들. 왼쪽에서 네번째가 강양규 지방회장.

### 예성 미주 서부지방회장에 강양규 목사

예수교대한성결교회 미주총회 서부지방회가 지난 13일 남가주새언약교회에서 열려, 신인 지방회장에 강양규 목사(남가주새언약교회)를 선출했다.

이번 제 13회 서부지방회에서는 효과적인 개척교회 지원 방안과 회원 상호 간의 친밀성 증대를 논의하고 교회 연합성회 및 연합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부회장에는 김

영일 목사(섬김과나눔교회), 서기에는 오병익 목사(남가주벤티리교회), 회계에는 손민호 목사, 부서기에는 이용남 목사(은혜세계선교교회), 부회계에는 조성우 목사가 각각 선출됐다.

김준형 기자



미주의 대표적인 문화선교단체인 갓스이미지가 엘바인에도 지부를 창립했다.

### 엘바인에 갓스이미지 지부 창립대

지난 12일 주일 엘바인아름다운교회(담임 이동준 목사)에서 갓스이미지의 공연이 있었다.

개설하게 됐다.

이 단체는 1990년 변은경 사모와 변용진 목사가 문화선교를 위해 창립해 해외와 미주 순회 공연을 펼쳐왔다. 현재 남가주 LA와 OC, 샌프란시스코, 시카고, 밴쿠버, 브라질, 파라과이 등에 지부가 있다. 문소현 기자



UCS가 2015년 졸업예배 및 학위수여식을 거행했다.

### “최선 다해 하나님 영광 드높이길”

#### UCS 졸업예배 및 학위수여식 거행

UCS신학대학교가 7월 18일 2015년 졸업예배 및 학위수여식을 대학교 강당에서 성황리에 마쳤다. 이날 신학 박사 1명(강양규)과 목회학 석사 3명(이승덕, 이재학, 정상기), 신학사 6명(김성일, 김원덕, 김정숙, 백영자, 연영수, 유영애), 그리고 통신학부 16명(강봉례, 김경숙, 김경희, 김광숙, 김복례, 김춘희, 민귀자, 백봉명, 석승연, 육민수, 윤성신, 이기호, 이윤숙, 이정민, 최사문, 최정직)이 졸업했다.

후 총장 최아브라함 박사가 인사말씀을 전하고 정시우 목사가 축사 및 권면, 이재학 학우가 송사, 이승덕 전도사가 답사했다. 이어서 5명의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했고 명예총장인 김여진 박사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졸업예배 및 학위수여식은 학장 최사라 박사의 사회로, 기도예 양경선 목사, 성경봉독에 최영원 교수, 설교에 조명환 목사, 특송에 LA여성선교함장단과 천상필 목사의 바이올린 연주로 이어졌다. 학위수여

이날 조명환 목사는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새로운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졸업은 마냥 행복하고 축하만 받는 자리가 아닌, 새로운 시작이다. 비록 우리의 앞 길이 보장되어 있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기를 축복한다”고 말했다. 문의) 213-598-3146

###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 박해민, 장재효, 이원삼, 박기호, 방지각, 김중연,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지사망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Pay to the Order of : Christianity Daily  
주소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 2015년 하반기 GMCC 선교 세미나

**Mission Statement**  
Gmcc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교명령에 순종하여 땅끝까지 예수의 증인되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다음세대를 품고 차세대 선교사를 양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세상을 섬기고 그리스도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 제자들의 모입니다.

문의  
Gmcc 대표 : 현병훈 장로 714)213-2882  
간사 안혜숙 213) 819-0047  
박노현 661)208-1602  
gmccmission@gmail.com

**\*매월 첫째 주 토요일은 참여자들의 예배로 드려집니다.**

**강사**  
 8 채동선 전도사 (8/15/22/29)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  
 9 유영택 선교사 (12/19/26) (C국 선교사)  
 10 김대준 목사 (10/17/24/31) (LA 비전 교회)  
 11 유혁 목사 (14/21/28) (예수 전도단 나사창 선교회)  
 12 류시하 목사 (12/19) (윌드미션 대학교)

**장소**  
LA 비전교회 세미나실  
520 S Lafayette Park Place #200, Los Angeles CA 90057

**일시** 8월~12월  
매월 매주 토요일  
오전 8:00 ~ 11:30

진행되어지는 모든 세미나에 대한 수강료는 없습니다.

GMCC와 함께 지역준비를 완하시거나, 파송 및 자원을 찾고 계신 분들, 그리고 GMCC 교육과 훈련과정에서 도움을 주시길 완하시는 교수 및 선교사분들 환영합니다.



# 너희 하나님을 보라

이사야 40:1-11



서울 성은교회 목사 장재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배은망덕하여 세상을 바라보고 육체의 본능과 그 욕구를 쫓아 마귀와 짝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앗수르를 통해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셨지만 이스라엘은 여전히 회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바벨론에게 붙여서 70년 세월을 종노릇하며 비참한 신세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 회복의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 1. 여호와와의 회복의 길 예비 방법: 회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들어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면서도 자녀의 고통에 마음이 합들고 괴로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본문 1-2절에 회복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시제로 볼 때에 잠자 바벨론 포로 기간 70년을 지난 후 이루어질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목자를 통하여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2절에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람을 입었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70년간의 죄 값을 치루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회개할 수 밖에 없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렇게 회개하면 그들은 비참했던 포로 생활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계획을 미리 세워두시고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백성들에게 이 희망적인 소식을 외치라고 요구하십니다.

3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프르포레아’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목자인 이사야에게만 들리도록 외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외침은 이사야의 영적인 귀에만 들린다는 것입니다. 목자는 이 음성을 듣고 말기신 자기 양떼에게 다시 외치게 됩니다. 이것은 오늘날 설교자의 태도에 대해 말씀해 줍니다.

목자는 그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대언해야 합니다. 자기의 사상과 신학적 편견으로 자기 주장을 펼치는 것이 설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은교회에서는 목자를 통하여 성령이 대언케 하시는 말씀이 선포되는 곳입니다. 그렇게 할 때 바른 설교가 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외치라고 하십니까? 광야에서 여호와와 길을 평탄케 하라는 외침입니다. 구체적으로 4절에 골짜기가 돌우어진다고 말씀합니다. 골짜기란 우리의 마음의 골짜기입니다. 우리는 그 곳에 온갖 죄악을 저질러서 깊이 숨겨 놓았습니다. 그 죄악의 골짜기를 다 들추어낸다는 것입니다. 드러난다는 것은 이제 회개

의 기회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회개하면 더 이상 죄악을 숨길 수 없도록 골짜기로 평지를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산마다 낮아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산은 자기를 들어내기 좋아했던 교만을 의미합니다. 자기를 과시하려고 했던 교만을 철저히 회개하고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잠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으로 높아진 마음을 깎아 평지로 만들어 버리십니다.

다음으로 고르지 않는 곳과 험한 곳이 평탄케 된다고 하십니다. 고르지 않다는 것은 울퉁불퉁하다는 것이고, 험한 곳은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없는 곳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그 인생의 심령이 강박하여 모든 사람들과 적대적인 관계를 맺으며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자신에게 가까이 올 수 없게 다른 사람을 향한 가시를 뺀고 사는 모습입니다. 그것을 회개하여 평지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어가 그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길을 닦으라는 요구입니다. 이것은 오직 회개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죄악의 골짜기와 교만의 산, 인간관계에 고르지 않고 험한 곳을 회개함으로 평탄케 만들라는 하나님의 애타는 말씀이십니다. 이 회개를 통해 예루살렘 회복의 언약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 2. 육신의 세상 조건은 풀과 같이 시들

6-8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죄가 드러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애타는 말씀을 듣고도 영적소망보다 현실적이고 육신적인 세상 조건을 위해 더 애쓰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핍박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즉, 그들은 영적인 것은 먼 훗날의 일이라 생각하고 당장 급한 현실적인 유익을 위해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자기 맘대로 산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70년 포로 생활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의 육체가 들에 있는 한 포기 풀과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풀이 꽃이 피고 열매를 맺으면 자기의 소임을 다한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을에 찬바람이 불면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들고 열매도 다 떨어져서 새나 들쥐의 먹이가 되고 맙니다. 그것이 육체가 가진 가치라는 것입니다.

7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은 여호와 의 기운이 그 위에 불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육체는 풀처럼 하나님의 입김 앞에 그저 시들어버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영원한 가치로 존재하는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영적인 소망으로 가꾸어 가야합니다. 다시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어긋나면서까지 육체의 입장에 모든 것을 걸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고 영적인 가치를 알고 믿어지는 믿음으로 살기를 진심으로 힘쓸 때, 하나님의 회복이 우리에게 서둘러지게 됩니다.

우리가 왜 가난하게 삽니까? 여전히 풀과 같은 육체에 얽매어 살기에 하나님의 기운에 그것들이 다 시들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면 하나님의 모든 것이 그 사람에게 허락되어집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것을 붙잡을 때에만 우리의 삶이 풍요로울 수 있습니다.

### 3. 모든 어려움에서 건지시는 강하신 하나님

9절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향하여 모든 유대인들이 들을 수 있도록 높은 산에 오르라고 명하십니다. 그곳에서 힘써 소리를 높이라고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너희 하나님을 보라고 외칠 것을 말씀하십니다. 죄악 세상에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다가 실컷 얻어터진 자들을 향해 외치는 소리입니다. 이제 세상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이사야 45장 22절에 “땅 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마음에 드시는 믿음으로 인정받고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10절에 예언한 것이 이루어질 때의 하나님의 모습을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강한 자로 임하실 것입니다. 즉,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종노릇 할 때에 그들의 형편과 처지, 환경과 분위기, 상황을 보고 하나님께서 건지시지 못할 것이라 실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당하는 상황이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여도 회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만 믿으면 강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될 것을 강조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강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의 형편과 처지는 하나님도 도저히 어쩔 수 없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형편과 처지에 너무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가는 비참한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은 바벨론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즉, 잠시 징계 중에 있을지라도 택함 받은 성도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를 깨달아 모든 형편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만을 굳게 의지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됩시다.

##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 국 선 교 설 교			
TV 한국 방송 설교		한국 신문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복 기독교 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 외 선 교 설 교			
TV 미국 방송 설교		라디오 미국 방송 설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토요일 오전 7시	목요일 낮 12시 주일 오후 10시30분	AM1540 라디오 코리아 AM1590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주일 오전 8시 / 동영상 설교 제공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미국 신문 설교			
기독일보	5면 설교 인터넷신문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AM1310 기쁜소리방송 FM91.5(SCA) AM1650 LA 미주기독교방송 주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 2015 미주기독교대학박람회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고시, 안수가능)  
1-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edu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호라이즌대학교**  
학위취득 과정 및 학생모집 학과  
학사: 신학/상담학  
석사: 신학/목회학/상담학  
박사: 신학/상담학

CA 주정부 교육국 BPPE 인가  
연방정부 승인 SEVIS 1-20 자체 발행  
520 S.La Fayette Park Pl. #411, LA, CA 90057  
Tel. 213) 736-5000 Fax. 213)736-5115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TRACS정회원 인증  
특장: Sovs 1-20 발행/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장학제도 있음  
학사과정: 성경학 학사(B.A in Biblical Studies)  
석사과정: 목회학 석사(Master of Divinity)  
종교학 석사(Master of Art in Religion)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미주대한신학대학**  
개혁주의에 기초한 성경해석과 성경에 대한 종합적 사고능력 배양,  
교회 역사와 신학에 대한 구속사적 안목의 정립,  
말씀을 실천하는 신실한 주의 증 앙성,  
세계 복음화를 위한 영적인 리더십의 준비.

1325 12th Ave., Los Angeles, CA, 90019  
Tel. 323-731-9819

**솔로몬대학교**  
땅끝까지 제자를 삼아 복음을 전하자 (마태복음28:18-20)

총장: 백지영 박사 부총장: 브랜트 프라이스 박사  
3921 Wilshire Blvd, #4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381-7755 Fax. 213-381-5055  
http://solomonuniv.org/

**AMERICAN BAPTIST SEMINARY OF THE WEST, BERKELEY, CA**  
L A Campus 목회학 박사과정  
(매년 1, 6월 통역제공, GTU 와 ATS 정회원)

Dr. Hyo Shick Pai: drhyopai@gmail.com  
ABSW President: Dr. Paul Martin www.absw.edu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ABHE, TRACS, ATS 정회원  
미국 주부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온캠퍼스 & 온라인 프로그램  
신학, 목회학, 기독교상담학 학사/석사/박사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 388-1000 Fax: 213) 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2 S.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

**캘리포니아 두란노 대학 신학대학원**  
목회학, 신학, 철학박사 California Tyrannus University  
BPPE Ed, code 94874, Sc code 22426  
CEO 학감 김호 박사

1008 S. Kingsley Dr., Los Angeles, CA 90008  
Tel. 213-507-1933

**미주총신대학교 CHONG SHIN UNIVERSITY IN USA**  
개혁주의 신학의 전통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21세기 교회와 세계 선교 사명을 이끌어 갈  
사명자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이사장 김연도 박사(D.P.M.) 총장 김근수 박사(Th.M., Ph.D.)  
2975 Wilshire Blvd.#3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487-1010 e-mail: info@chongshinusa.edu  
www.chongshinusa.edu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다기독교학과(BA), 목회학석사(M.Div.), 상담학석사, 선교학석사, ESL, TESOL  
다연방정부 승인 SEVIS 1-20 자체 발행  
다안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류종길 박사, 이사장: 김광원 목사  
1818 S. Western Ave. Suit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 Fax (323)643-0302  
www.aeu.us / aeuimaster@gmail.com



# 담임목사님을 청빙합니다

Houston, TX에 위치한 휴스턴 한인 교회(독립교단)는 45년의 역사와 자체성전과 기도원을 소유한 교회로서 아래와 같이 담임목사님을 청빙합니다.

### 자격조건

- 1) 목회비전과 철학이 있고 사랑으로 목양 하실 분
- 2) 보수정통 복음주의 신앙 소유자
- 3) 이중언어 가능한 분(한국어,영어)
- 4) 목사 안수 받으신 분
- 5) ATS 승인받은 정규 신학대학원 목회학석사(M.Div)를 졸업하신 분
- 6) 미국에 체류하는데 결격사유가 없는 분
- 7) 담임목사 나이: 35세-49세

### 제출서류

- 1) 이력서(한,영 각 1부) 및 가족사진(본인, 사모 및 가족)
- 2) 신앙고백과 목회철학 각 1부
- 3) 본인 및 사모 그리고 가족소개서
- 4) 최근 설교 CD 2회분
- 5) 정규 신학 대학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 6) 목사 안수 증명서
- 7) 추천서 2통(목회자 2명 이상), 추천인 연락처 기재

### 접수안내

- 1) 제출마감일: 2015년 7월 30일
- 2) 제출처: The Korean Christian Church of Houston  
Pastor Nominating Committee (담임목사 청빙위원회)  
10410 clay Rd., Houston TX 77041  
\*이메일 문의: kcchoffice@gmail.com
- 3) 전화 문의: 713-937-7444
- 4) 청빙위원장: 진상철장로 (휴대폰 713-498-3545)

### 기타

- 1) 제출서류는 우편으로 보내주시고
- 2) 서류심사 통과된 분에게는 추가서류와 면담과 설교를 요청 드릴 수 있습니다.
- 3)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비밀보장합니다.

휴스턴 한인 교회

# 담임 목사 청빙 공고

저희 교회는 캘리포니아주 실리콘밸리 중심지인 산호세 지역에 있는 **산호세 새소망 교회** (San Jose New Hope Christian Reformed Church)입니다. 담임 목사님을 아래와 같이 청빙합니다.

### 1. 자격

- 1) 신학 대학원 졸업한 분으로서 Christian Reformed Church (개혁 장로 교회)교단 가입에 결격 사유가 없는 분
- 2) 목사 안수 후 이민교회 담임목회 혹은 부목사로 5년 이상 사역 하신 분
- 3) 미국 영주권이나 시민권 소유하신 분

### 2.제출 서류

- 1) 이력서 (연락처 명기)
- 2) 목회 계획 및 자기 소개서(가족 포함)
- 3) 최근 설교 2개 이상(동영상 CD 또는 DVD) 혹은 설교 말씀이 실린 웹 사이트 소개
- 4) 정규 대학 및 신학 대학원 졸업 증명서 각1통
- 5) Reference 2분 이상
- 6) 본인 및 가족 사진

### 3.제출처 (가능한 서류는 soft copy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Email: kmpastorsearch@sanjosenewhope.org  
 주 소 : 담임목사청빙위원회, San Jose New Hope Church  
 2900 Patrick Henry Dr. Santa Clara CA 95054  
 www.sanjosenewhope.org  
 제출 기한 : 2015년 7월 31일

### 4. 유의사항

- 1)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청빙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합니다.
- 2) 문의 사항은 이메일로 해주세요.

산호세 새소망 교회

# 유치부(Pre K-K)전도사 청빙

선한목자 장로교회는 LA 동부지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열심히 사역하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다음과 같이 유치부(Pre-K) 아이들을 사랑으로 지도하실 파트 사역자를 모집합니다.

### 1. 지원자격

- (1) 신학대학원 재학생 또는 졸업생
- (2) 이중언어(한국어, 영어)가 가능한 분
- (3) 합법적인 미국 체류에 결격사유가 없으신 분

### 2. 제출서류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신앙간증 포함), 추천인 2명 기재요함 (관계, 연락처 포함 - 추천서는 소정의 서류 심사 후에 요청드립니다)

### 3. 주요사역

주일 예배 및 주중모임(금요일 7:30pm) 인도와 기타 관련된 사역

### 4. 제출하실 곳

clarkjdsn@yahoo.com (To, Pastor Clark Choi / 최 클락 목사-교육부 담당목사)

### 5. 제출마감

2015년 8월 20일(서류가 접수되는 대로 심사가 진행됩니다)

# 선한목자 장로교회

1816 S. Desire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 단 지파는 단군의 조상인가



민종기 목사  
충현선교교회

단 지파가 단군의 조상이라는 주장이 있었다. 우리 민족이 유태인의 한 지파를 조상으로 하고 있다는 말이다. 환웅이 풍백, 운사, 우사를 거느리고 태백산 신단수 아래서 3,000명을 데리고 나라를 세웠다는 단군 신화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 단 지파의 이주에 대한 이야기와 어떻게 조화를 이룰지 알 수 없는 주장이다.

역사로 볼 때, 단 지파와 단군은 “단”이라는 글자 하나가 같다는 것 밖에는 공통점이 없다. 이는 단 지파의 역사를 살펴볼 때,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단 지파는 12지파의 하나로서 라헬의 여종 빌하를 통하여 낳은 야곱의 5번째 아들을 통하여 형성된 지파다. 민수기에 나오는 두 번째 인구조사의 기록을 보면 단 지파는 숫자에 있어서 유다지파의 76,500에 이어 둘째가는 64,400으로 크게 융성하였다. 그 당시의 연대가 대략 기원전 1500년 경이니 단군이 개국한 기원전 2,333년과는 800년의 차이가 난다.

단 지파는 많은 인구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좋은 땅을 차지하지 못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

게 가장 비옥하고 아름다운 계곡과 해변의 땅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이들은 이 지역을 효과적으로 공략하여 정복하지 못하였다. 블레셋 사람이 그 지역에 강대한 채로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단 지파는 오히려 그들과 섞여 살았으며, 삼손의 때에는 전투무능한 능력의 대장군 삼손을 사사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비겁하게 삼손을 블레셋에 넘겨주는 잘못을 범한다. 단 지파는 우리 민족이 따를 만한 모범이 전혀 되지 않는 지파다.

하나님의 약속한 기업에서 밀려난 단 지파는 새로운 지역을 모색하게 된다. 지금의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훌레 호수를 지나 “라이스”

라는 장소를 쳐서 평화로운 사람들을 죽인다. 그 과정에서도 단 지파는 큰 실수를 하나 범한다. 바로 미가의 집에 있는 우상을 레위인과 함께 도적질하는 것이다. 그 결과 새롭게 세워진 북쪽의 단 지파는 결국 첫 조직적 배교의 지파가 된다. 즉 사사시대에 최초로 한 지파가 집단적인 배교에 빠지는 전철을 보여준다. 우상숭배한 제사장이 모세의 손자,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이었고 고 하니 영적으로도 단 지파는 모범이 되지 않는다.

단 지파의 커다란 잘못은 이렇게 한 번 우상숭배에 노출된 사람들이 또 다른 우상숭배의 본거지가 된다. 이는 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잘못으로 유다와 이스라엘로 갈린다. 이때에 북조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은 예루살렘에 대한 백성의 영적 향수를 막으려고 벧엘과 단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경배하게 한다. 단 지파는 앗시리아의 침공으로 멸망하고 포로가 되기까지 우상숭배를 일삼는 오류를 범하였다. 우리 민족의 조상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미덥지 않고 역사적으로도 증거가 없다.

# 두려워하든지, 사랑하든지



김한요 목사  
베델한인교회

메르스가 지나간 한국은 마치 태풍이 지나간 것 같았다.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는 식의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와 반면에 태풍 후 무너진 담장을 다시 세우는 것처럼 곳곳에 메르스로 활취어진 상처들을 치료하는 노력도 보인다.

정확하게 1년 전 미국에서도 아주 비슷한 일이 일어났었다. 아프리카에서 에볼라가 발생하여 모든 사람이 피해 달아나고 있었을 때 미국인 의사와 간호사는 에볼라 환자를 돌보기 위해서 아프리카를 향해 갔다. 그리고 그들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의사와 간호사는 에볼라에 감염되었고, 그들이 치료를 받기 위해서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는 과정에 여론이 들끓었다. 그들이 돌아오면 미국이 위험해지니까, 완치될 때까지는 돌아올 수 없다는 여론이었다.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그것도 타민족을 위해 헌신적으로 나간 두 사람의 의사와 간호사 처지에서 생각해 볼 때, 미국 국민의 여론이 야박하기 그지 없었을 것이다.

이때, 예모리 대학병원의 수간호사 수간 그랜트가 워싱턴포스트에 기고한 글은 두려움에 떠는 여론을 잠재우기에 충분했다. 그 내용을 요약한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에볼라와 같은 균이 발병했을 때, 이를 대처하고 치료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에 대한 무식함이 두려움을 야기시켰다. 우리는 이같이 전염력이 강한 환자들을 치료하도록 특별히 훈련받은 팀이 있다. 둘째, 이보다 에볼라 전염에 대한 두려움이 생긴 이유는 미국 의료 시스템의 기초적 사명을 망각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어떤 질병이든지, 희생을 마다치지 않고 그것을 치료하기 위해 헌신해야 한다. 셋째, 왜 우리가 위험을 무릅쓰고 에볼라 환자를 치료해야 하느냐? 왜냐하면, 그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모든 사람이 빠져나가는 아프리카를 향해서 간 것이 옳은 일이고, 그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하여 치료해 주는 것은 옳은 일이다. 이와 같은 일이 발생했을 때 우리

는 에볼라균 혹은 메르스균보다 더 심각한 사회에 만연한 이기적인 균을 보게 된다. 한 병원의 체면이 국민 건강보다 먼저이고, 자기 편의가 남의 안전보다 우선하는 균이며, 너는 죽든 말든 나부터 살고 보자는 몹쓸 질병이다. 단적으로 이것은 죄라는 질병이다. 병원은 균을 치료해야 한다면, 교회는 바로 이 질병을 치료하는 곳이라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수간 간호사의 글은 교회가 해야 할 일도 일깨워 준다. 교회는 이 질병 앞에서 한탄만 하고 있지 말고, 교회는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소유하고 있음을 알고 말씀 그대로 담대히 선포해야 한다. 또한, 교회는 희생을 무릅쓰고 교회 본연의 모습, 기초적 사명을 충실히 감당해야 한다. 민족과 인종을 넘어, 또한 세대를 뛰어넘어 차별 없이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이것이 옳기 때문이다.

수간 간호사는 이렇게 글을 맺었다. 에볼라균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하며 살든지, 아니면 서로 사랑하며 살든지 할 수 있다. 교회여, 우리도 죄의 질병이 만연한 세상 앞에서 두려워하든지 말씀 선포하며 나아가 돌보든지 할 수 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

# 기본이 튼튼한 신앙



엄영민 목사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

세계적인 선수들이 각축을 벌이는 월드컵이나 올림픽 같은 경기들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은 세계적인 선수들은 남이 갖지 못한 특별한 기술이 있기보다는 누구나 다 아는 기본이 잘 돼 있다는 사실이다. 축구 선수들을 예로 들면 세계적인 선수라고 해 남이 할 수 없는 특별한 기술을 보이는 경우는 별로 없다.

그저 다 남이 하는 대로 발을 물고 달리고 패스하고 또 슛을 한다. 세계적인 선수와 그렇지 못한 선수의 차이는 다만 그 기본을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하는가의 차이이다. 세계적인 선수들의 플레이를 보면 멀리서 공을 차도 목표로 한 곳에 거의 정확하게 떨어지고 또 그 공을 받는 선수들은 패스를 받은 공을 잘 받아서 빨리 다음 동작을 이어갈 수 있게 잘 콘트롤 하고, 슛은 웬만해서 골대를 많이 벗어나지 않는 정확도를 유지한다.

사실 이 모든 것들은 축구선수라면 누구나 해야 하는 기본일 것이다. 결국 훌륭한 선수와 그렇지 못한 선수의 차이는 그 기본이 얼마나 단단하게 되어 있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다. 목회의 연륜이 쌓여가면서

깨닫는 신앙의 원리도 마찬가지다. 더러는 신앙이 좋으면 남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알고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사람들인 것처럼 생각하기도 하지만 내 경험에 의하면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결코 별난 사람들이 아니다. 별난 일을 하는 사람들도 아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남들도 다 알고 있는 기본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이다.

그렇다면 신앙의 기본이 무엇일까? 크게 보아 말씀과 기도, 예배와 봉사, 정직한 헌금과 영혼에 대한 사랑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신앙의 기본이 있는 사람은 우선 생명의 양식인 말씀을 정기적으로 읽고 듣고 묵상하는 사람이다. 성경은 이런 사람을 물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

다고 표현했는데 정확한 표현이다. 말씀이 삶의 바탕이 된 사람은 마르지 않는 샘같은 은혜가 있다. 예를 들면 이 말씀의 기본은 매일 매일 큐티만 꾸준히 해도 채워진다. 그리고 그 말씀의 바탕 위에 꾸준한 기도의 생활이 있다.

반드시 장시간을 기도하지는 않아도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며 크고 작은 일에 늘 기도로 앞서가는 훈련이 되어 있는 것이다. 보통 교회마다 새벽, 오전, 저녁 등 다양한 정기 기도회가 있는데 이 중 어느 하나라도 꾸준히 참석하면 좋을 것이다. 부득이 그렇지 못할 경우 집이나 일터에서라도 규칙적인 기도의 시간을 가지면 될 것이다. 믿음의 기초가 든든한 사람은 또한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소중함을 알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 는 일을 삶의 우선 순위로 둔다. 이렇게 기본에 충실한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난다.

거듭 말하지만 신앙의 성숙이란 별난 사람이 되는 것도 별난 일을 하는 것도 아니다. 이 가장 기본적인 것을 얼마나 꾸준히 그리고 얼마나 진지하게 삶으로 실천하는가 하는데 있다.



www.sellacare.com SEARCH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줄 수 있는 **신비한 영양제**  
**SELLA CARE®**  
 유태인 특수영양제 M3세트



혈액 해독 / 기력 회복

천연 항염, 혈관 탄력  
면역력 강화

심장, 뇌 혈전 용해

뼈, 골수 영양 공급

# 세상에서 제일 좋은 신비한 영양제 M3® 세트

셀라케어 제품은 유태인 코셔인증의 고급 유기농 원료로 만든 미국제품으로 미국 FDA인증의 CGMP생산품입니다

면역력이 곧 기적!  
어떠한 병이든지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영양제

## M3® 세트

좋은 흙에서 나온 식물성 원료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믿을 수 있습니다.

- 1 체내 흡수가 빠르므로 복용 효과가 높습니다. (1-3일 내)
- 2 혈액을 깨끗하게 하고 혈액 내에 영양을 공급하여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함으로서 무슨 병이던지 큰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 3 세계 특허(특허번호 51281391) 공법으로 제조되어서 복용 후 체내 흡수율이 다른 제품에 비해 월등히 높습니다. (흡수율 92-96%)
- 4 셀라케어의 모든 제품은 남녀노소 모두 복용가능합니다.

### 제품소개



#### M3

이 영양 보충제는 다양한 아미노산 결합 복합체입니다. 선진기술로 만들어진 이 제품 속에 포함된 무기질은 콩, 효모균, 보통 무기질 결합 복합체에 쓰이는 우유 단백질보다는 통쌀 농축물에 반응합니다. 셀라케어에 의해 사용된 특별한 쌀 농축물은 일반 쌀보다 아미노산 함량이 무려 7배가 높으며, 상당한 양의 콩에서만 볼 수 있는 아미노산의 배열 단면을 가집니다.



#### VC 2000

이 제품의 특징은 캡슐로 되어 있으며 질 좋은 천연재료에서만 추출되는 바이오프라보노이드가 들어 있어 감기에 탁월한 효과가 있으며, 가장 질 좋은 Rosehips과 Acerola에서 추출된 최상의 비타민 C입니다.



#### MEG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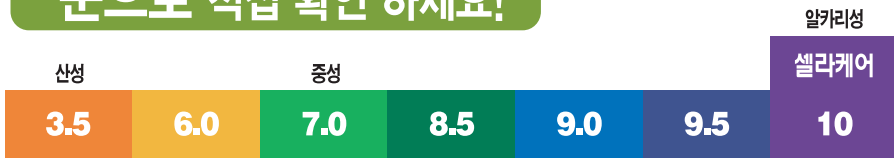
우리 몸의 가장 풍부한 무기질 칼슘은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체의 99% 이상의 칼슘이 우리 몸의 구조를 지지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뼈와 치아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남은 1%는 체내 혈액, 근육, 세포 내 체액 속에 있습니다. 칼슘은 근육의 수축, 혈관 수축과 팽창, 호르몬과 효소의 분비, 신경계의 전달기능에 필요합니다. 칼슘의 생리학적 기능은 칼슘 섭취량이 불충분할 때 정상적인 혈액 내 칼슘 함유량을 유지하기 위해서 뼈의 염분을 제거하는 등 우리 인체의 생존에 매우 필수적입니다. 그러므로 적절한 식이요법을 통한 칼슘의 섭취는 건강한 골격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인입니다.



#### GOLDEN WATER

이 제품에 함유된 비타민 D는 베타D, 감마 d와 같은 면역관련 물질들이 혼합된 토크페롤과 100% 천연의 에스테르화되지 않은 알파토크페롤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 눈으로 직접 확인 하세요!



많은 영양제중 M3만이 알칼리 테스트(PH Test)에서 최고 품질 보라색으로 변합니다

병치료와 장수의 시작은 피를 맑게 하여 알칼리화시키는 데 있습니다.

유태인 특수영양제 M3세트

# SELLA CARE®

정직한 마음으로 권합니다.

제품상담문의 213.435.9600

본사(LA)	213.435.9600	LA별몬 마틴약국	213.382.9718	플러튼 흡소핑	714.496.7887	뉴욕,뉴저지	201.983.8333
시온약국	213.344.9730	LA별몬 갤러리아마켓약국	213.388.4100	에나하임	714.469.5809	시애틀	206.331.6655
LA 아드모아약국	213.385.2135	가주건강종합백화점	213.388.0091	다이아몬드바 JJ 약국	909.595.4003	씨애틀 (건강마을)	206.229.5466
LA 한국마켓약국	323.464.3925	LA 5가버질 그랜드약국	213.380.5103	얼바인	949.330.9009	센루이스,캔사스	314.570.9629
LA 베스트약국	213.385.9926	가디나	714.351.0440	H 마트 내 H 헬스 (다이아몬드바)	909.594.6370	하와이(생약초)	808.947.8086
우리약국 (우리종합병원내)	213.384.6323	글렌데일 한국마켓약국	818.637.7708	랜초쿠카몽가	909.987.9500	시카고 알바니약국	847.699.1511
에스약국	323.733.7788	밸리	818.642.8223	H 마트 내 H 헬스 (얼바인)	949.251.0193	시카고 서울마켓 (헬렌)	224.406.0337
올림픽갤러리아마켓약국	323.733.7200	밸리 소망 약국	818.832.2757	놀릭 H 마트 리빙헬스	562.402.8859	조지아 (발아건강식품)	770.457.1717
LA 다운타운	213.798.3333	오렌지카운티	213.247.2244	파이오니어약국 (세리토스)	562.402.6972	텍사스 (로얄백화점)	972.620.2900
LA시온마켓엄마손약국	213.739.3030	부에나파크 지구촌약국 (H마트 내)	714.228.9212	세리토스 그린라이프	562.402.6970	플로리다/NC/SC	770.457.1717
LA 6가 버질약국	213.384.1200	가든그로브 건강마을	714.636.2588	그린랜드 건강헬스 (그린마켓 내)	626.839.2868	캐나다	604.872.1669
LA 사랑방	213.351.9552	시온마켓 내 시온헬스	714.730.2707	로렌하이츠	626.912.5727	세크라멘토/아리조나	602.332.6492
LA내쳐영양센터	213.739.8874	플러튼 내쳐영양센터	714.690.0120	토랜스 한남체인(건강마을)	310.619.7758		
뉴서울호텔 (팔달)	213.386.5310	플러튼 베스트케어약국	714.670.7979	토랜스	213.268.0844		



# “통일은 한국교회 사명, 다음 집회는 평양에서?”

8월 9일 서울광장 ‘평화통일기도회’ 앞두고 전진대회



전진대회 참석자들이 '통일'을 염원하며 결단 찬양을 부르고 있다.

‘광복70주년한국교회평화통일기도회’(이하 통일기도회) 전진대회가 20일 오전 서울 명성교회(담임 김삼환 목사) 예루살렘성전에서 개최됐다. 통일기도회 준비위원회(대표위원장 소강석 목사)가 주관한 이날 전진대회는, 오는 8월 9일 오후 3시 30분부터 서울광장과 광화문 일대에서 진행될 통일기도회를 앞두고 그 역사적 의미와 목적을 새겨, 성공 개최를 기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1부 예배와 2부 전진대회로 열렸다. 예배에 앞서 대표준비위원장인 소강석 목사가 전진대회 개최 취지를, 이영훈 목사(한기총 대표회장)가 환영사를 각각 전하기도 했다. 먼저 소 목사는 “한국교회의 가장 큰 과제는 첫째로 본질 회복이고 그 다음이 연합”이라며 “한국교회가

먼저 연합해 평화통일의 선봉장이 되어 할 것이다. 오늘 전진대회가 이를 위한 계기를 마련하고, 평화통일의 진원지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영훈 목사는 “통일은 반드시 이뤄야 할 시대적 사명”이라며 “이를 위해 한국교회 모두가 하나로 뭉쳐 기도해야 한다. 한국교회가 겸손히 연합해 통일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해 주시는 복을 내려 주실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예배는 권재호 목사(예장 합동 서기)의 사회, 원팔연 목사(기성증경총회장)의 대표기도, 전용재 감독회장(기감)의 설교, 최낙중(세계성시화운동본부 서울본부장)·최제봉(그리스도의교회한국교역자회 총회장)·우종휴(예장 합신 총회장)·이강평(한기총 공동회장) 목사의 합심

기도, 장종현 목사(예장 백석 총회장)의 축도로 진행됐다.

김삼환 목사는 “지난 2010년 광복 65주년을 맞아 하나님의 은혜로 대형 집회를 했었고, 이제 다시 광복 70년을 기념하는 집회를 앞두고 있다”며 “이 통일기도회는 한국교회가 반드시 감당해야 할 사명이다. 이제 다음 집회는 통일 후 평양에서 하면 한다.”고 전했다.

한편 주최측은 통일기도회의 역사적 의미와 목적을 △생명평화평화의 메시지 선포 △나라와 민족의 미래 비전 제시 △한국교회의 사명과 책임 재확인 △한국교회의 전통 계승 및 회복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간구와 결단 △세계교회와 디아스포라에 대한 섬김 등으로 꼽았다.

김진영 기자

# 목회자 윤리지침안 공청회 개최

예장통합, 설교 표절·학력 위조 반영



예장통합 교단이 주최하는 ‘총회 목회자윤리지침안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총회장 정영택 목사) 교단은 목회자 윤리에 대처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21일 오후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에서 ‘총회 목회자윤리지침안 공청회’를 열었다.

예장 통합은 이번 공청회를 거쳐 오는 100회기 총회에서 ‘목회자윤리지침안(윤리지침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이날 공청회는 이홍술 목사(목회자윤리지침제정위원회 위원장)가 취지 및 소회를 밝혔고, 박용권 목사(목회자윤리지침제정위원회 서기)가 윤리지침안을 소개했다. 이어 고재길 교수(장신대)와 홍성호 목사(순천제일교회)가 패널 논찬을 했다.

공청회에서 선보인 윤리지침안은 “최근 한국교회 현실은 목회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부르심에 신실하게 응답했는지를 돌아보게 한다”며 “지교회 안의 분쟁, 교파 간의 경쟁과 다툼, 교회연합 단체의 분열, 이단의 발호, 목회자들의 삶의 양극화, 목회자의 도덕적·성적 타락과 성차별의 심화, 권력자가 된 목회자의 횡포 등 부끄러운 일들이 교회를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면서 취지를 밝히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다수의 강령이 포함됐다. 이 중 ▲성경의 가르침이 모

든 다른 자료를 뛰어넘는 권위를 가짐 ▲설교 준비 과정에서 표절을 부정직한 행위로 거부 ▲부정의한 방법과 수단으로 학력을 위조하거나 취득하지 않음 ▲청렴한 삶 추구 ▲금전적 거래를 교우들과 하지 않음 ▲성적 순결함에 있어서 죄된 성적 행위나 부적절한 연루를 피할 것 ▲어떠한 형태의 중독적, 폭력적, 모욕적인 행동을 하지 않을 것 ▲목회 현장을 가족에게 세습하지 않으며 은퇴와 동시에 지교회의 문제에 관여하지 않을 것 등의 강령이 한국교회 현실을 반영하고 있어 관심을 끌었다.

고재길 교수는 논찬에서 “한국교회 가 위기에 처해 있다는 말이 회자되고 있다”며 “교단에서 목회자윤리지침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 것은 그 의미가 적지 않다”며 공청회가 열린 것의 의미를 부여했다.

홍성호 목사는 논찬을 통해 “분명 목회자의 자기 갱신을 통해 교회의 개혁, 삶으로 드러나는 개혁이 필요한 시기”라며 “금번 목회자 윤리지침이 목회의 성경적 또는 복음적 본질을 회복하고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이상을 구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동윤 기자

# 합동총신 “신육주 목사 잘 지도하겠다”

이단성 논란 관련 입장 표명... 사과 및 재발 방지 약속

신육주 목사(은혜로교회)의 소속 교단인 예장 합동총신총회(총회장 강용대 목사)가 17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신 목사의 이단성 논란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합동총신 측은 “본 교단은 한국교회연합(한교연) 바른신앙수호위원회(하수위)의 신학적 고언을 받아들여 적극적으로 수정 의사를 밝힌 신육주 목사에게 교단 차원의 신학적 지도를 통해 한국교회 안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아울러 그간 한국교회에 물리적 충돌로 인해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도 교단 차원에서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지도할 것”이라고 했다.

한교연 바수위는 최근 신육주 목사 사와 두 차례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는데, 당시 신 목사는 “지적된 부분은 수정하고 과격 시위에 대해서는

사과하며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신 목사는 또 자신들이 과격 시위를 벌였던 예장 합신, CBS, 최삼경 목사 등에 최근 사과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합동총신 측은 “최근 8개 교단 이단대책위원회(이대위) 연석회의에서 본 교단 소속 신육주 목사와 관련해 공동 대처하기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교단에서 이를 직접 지도하기로 한 바, 해당 교단들에 공문을 발송해 이와 관련한 모든 부분을 본 교단에 위임해 줄 것을 요청할 것”이라고 했다.

합동총신 측은 또 신육주 목사에게 이대위(위원장 강요셉 목사)의 조사 결과 보고서도 첨부했는데, 여기에서도 “신육주 목사는 저서에서 오해 소지가 있는 부분은 폐기처분한다 하였으며, 누구든지 문제를

지적하면 토론을 통해서 왜곡된 부분을 풀고 이단적 요소가 있다면 본 교단의 면지도 따르겠다는 입장”이라며 “따라서 본 교단과 이대위는 잘 지도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대위는 신 목사에게 구제적으로 △신앙고백과 목회철학은 보수 정통이 확실하다 △구원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양태론 및 삼신론에 대해서는 근거 없다 △합신측이 토론없이 일방적으로 이단으로 정죄했다 △정통 교단의 교리와 헌법 등을 모범으로 삼고 있다 등의 조사 결과를 밝혔다.

한편, 이 자리에는 한교연 바수위 부위원장이자 합동총신과 뿌리를 같이하는 해외합동총회 소속인 박요한 목사도 함께 참석하여 기자회견을 지켜봤다.

류재광 기자

# 일부 지자체 조례, 동성애자 포함시켜

7월 1일부터 시행된 ‘양성평등기본법’과 관련, 한국교회연론회(대표 유만석 목사)가 21일 “양성평등기본법에 성소수자가 들어가나? -일부 지자체의 언더간 비상식적 행위 드러나”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면서 “각 지자체들이 이 법의 취지에 따라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양성평등에 ‘성소수자’(동성애자) 조항을 끼워 넣는 등, 원래 법의 취지에서 벗어나는 불법적 처사를 보이고 있어 매우 우려된다”고 밝혔다.

교회연론회는 “이는 명백히 양성평등에 대한 오해이며, 왜곡”이라며 “우리나라는 현재 차별금지법이 없다. 이 지자체가 포함시킨 동성애자를 차별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

럼에도 지자체가 생뚱맞게 조례에 이런 조항을 넣는 것은, 사회적 혼란과 법의 체계를 무너뜨릴 가능성이 높다. 이제라도 이 지자체는 이런 불법적 조항을 즉각 삭제시켜야 한다”고 했다.

교회연론회는 “동성애와 동성결혼 인정은 지금 서구에서 일어나는 사회 질서의 파괴, 가정 붕괴, 비인간화 촉진, 사회 갈등과 분열 등을 가져올 것임이 불을 보듯 뻔한 일인데, 지자체들이 왜 이런 일에 불화의 불을 지피려고 하는가?”라며 “시민들이 적극 나서서 이를 감시하고 시정이 이뤄지도록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대용 기자

## 회소식 Super store 푸엔테힐스에서만 드리는

# 중·소형 교회 목회자를 위한 자동차 특별 리스

# '파스터 패키지'(Pastor Package)

크레딧이 없거나 나빠도 OK!  
중·소형 목회자를 위한 원가세일!

차종 : 엘란트라, 소나타, 중고차  
구입서류 : 목회자 증명서, 현재 목화하고 있는 교회 주보, 소득증명서

**푸엔테힐스 현대**  
Puente Hills Hyundai

**Tel. (213)276-8959(찰리 정)**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Dealer Tel. 1-880-850-2077**

찰리 정



# PCUSA 중대서양대회

## 신임회장 조은상, 부회장 박대웅 목사 선출



미국장로교단(PCUSA) 중대서양대회가 7월 6일부터 9일까지 열려 신 임원진을 선출했다.

미국장로교(PCUSA) 중대서양대회 신임회장으로 조은상 목사(매릴랜드제일장로교회 담임)가 선출됐다. 신임부회장은 박대웅 목사(예수소망교회 담임), 총무로는 조진영 목사(조지아장로교회 담임)가 선출됐다.

이 같은 사항은 지난 7월 6일부터 9일까지 사우스캐롤라이나 머틀비치 소재 킴스톤플래이션 리조트에서 열린 중대서양대회 가족수양회 및 총회에서

결정됐다.

이번 가족수양회는 한국 포도원교회 김문훈 목사가 강사로 나섰으며 29개 교회에서 420여 명의 성도들이 함께 했다. 이 자리에서 김문훈 목사는 하나님의 본심, 응답 받는 기도, 리더와 리더십, 가정의 기적 등을 주제로 재치있고 웃음이 넘치는 설교를 전해 참석자들에게 은혜와 감동을 전했다.

김 브라이언 기자

# 기도 용사만이 전쟁에서 승리

## 베다니장로교회, 김문훈 목사 초청 부흥회

베다니장로교회(담임 최병호 목사)가 12일부터 14일까지 '김문훈 목사 초청 부흥회'를 개최했다.

부산 포도원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김문훈 목사는 현재 CTS, CBS TV 특강 강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쓰임받는 사람의 축복' 등 10여 권의 저서를 출판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번의 집회에서 김문훈 목사는 '최고의 축복'(디모데전서1:1,2), '전쟁과 승리'(열왕기하3:9-12), '건너가 차지할 땅'(신명기11:8-12)을 주제로 말씀을 전하며 우리의 영혼을 시원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

집회 둘째 날인 13일에 김문훈 목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가 중요하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영적인 기록을 감당하지 못하고, 기도하는 자만이 전쟁에서 승리한다"며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잘 물어보는 사람이며 기도의 분량을 끝까지 채우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메시지를 주시고 이루신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목사는 "기도의 용사가 전쟁에 이기는 자이다. 승자는 생명나무 열매를 얻는다. 천국은 승리한 자, 세마포



김문훈 목사

흰 옷을 입은 거룩한 자만 들어갈 수 있다. 작고 보잘 것 없는 자를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자.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위대한 일을 이루신다"고 덧붙였다.

윤수영 기자

# 김철식 교도소 선교사 법무부 봉사상 수상

## 재소자들의 영혼구원 위한 교도소 선교에 헌신



김철식 선교사가 법무부 산하 교정국이 시상한 봉사상을 수상했다.

김철식 교도소 선교사(Global Mission Alliance 선교재단파송: 이사장 정인수 목사)가 7월 메이콘에서 열린 조지아 법무부 산하 교정국의 2014년도 ANNUAL GEORGIA DEPARTMENT OF CORRECTIONS(GDC) AWARDS 시상식에서 파트너십 어워드 분야 봉사상을 수상했다. 이는 김 선교사가 지난 12년 동안 스미스 주교도소에서 재소자들에게 보여준 헌신적인 사역과 봉사를 인정 받았음을 나타내 준다.

GDC 고위 간부들과 수상자들 그리고 축하객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시상식은 2014년도에 헌신한 조지아 교정국 산하 6부분 업무의 15 분야에 종사하는 직원과 외부 봉사자들 중 1명씩이 선정돼 영예의 상을 수여했다.

김철식 선교사는 2004년부터 재소자들의 영혼구원을 위한 전도집회, 한인재

소자 및 모범수들의 식사제공, 성경공부, 상담, 한국어학교 운영, 찬양팀 운영, 재소자들의 고등학교 입학 및 졸업 알선, 기술 면허증 취득알선, 한인 및 외국인 종신형 재소자들의 가석방 추진사역 등의 사역을 자비량으로 감당해 왔다.

김철식 선교사는 "오늘의 귀한 상을 수상할 수 있도록 교도소 사역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 또 Global Mission Alliance 선교재단과 정인수 목사님께 감사를 드린다. 무엇보다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동역자들과 가족에게 감사하며 앞으로 더 열심히 사역에 매진하라고 주신 상이라 믿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김철식 선교사는 오는 8월 28일 2,200명의 재소자들에게 점심을 제공하며 300여 명의 모범수들을 위한 특별 전도 집회를 개최한다. 김 앤더슨 기자

# 교회의 빛

**LA 지역**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점심예배 오후 2:22 오전 6:20(토)  
주일-버림중학교 / 토요일-17(외버몬트 크니)  
주중사택 - 520 S. La Fayette Park Pl. #450, Los Angeles, CA 90057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깨우고, 이민2세를 책임지며, 이민가정을 섬기며, 선교광명을 증진하는 교회  
520 S. La Fayette Park Pl. #450, Los Angeles, CA 90057  
주중연락처 T. (213)386-2233

주일에배 오전 11:2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주일학교 오전 11:20 토요일예배 오전 6:00  
학생 청년부 예배 오전 11:20

**연재선** 담임목사

**LA 온하늘교회**  
1540 S. St Andrews Pl., Los Angeles, CA 90019  
T.(818)983-9024

주일에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 - 토)  
수요기도회 오후 7:30

**박성도** 담임목사

**LA 선교교회**  
내 지역을 밝히라, 믿음으로 성령받고, 사랑으로 해나며, 소망중에 기뻐하라  
3511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19  
T.(213)435-0380, (213)435-0094 / www.missionla.org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Youth 예배 오전 11:00 토요일합세배 오전 6:20

**한현영** 담임목사

**갈릴리션교회**  
함께웃고 함께주는 공동체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churhc.com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오류 찬양예배 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현연섭** 담임목사

**구인성장교회**  
실천하는/전도하는/헌신하는 신앙 공동체  
4545 W. Washington Blvd., LA, CA 90016  
T.(323)428-7878/F.(323)932-0788 / kuinholy@hanmail.net

주일 오후 4시 새벽 오전 5:30 (월-토)  
저녁 오후 7:30 (화,목,금)

**엘리아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978 S. Hoover St. #203, LA, CA 90006  
T. (213) 272-6031

1부예배 오전 7:40 EM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3부예배 오전 11:45 수요일예배 오후 7:30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아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주일예배1부 오전 8: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예배2부 오전 9:3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주일예배3부 오전 11:00

**한기형** 담임목사

**나성동산교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  
2525 W. James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  
T.(213) 487-3920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후 11:00 EM 오후 1:00  
한어찬양부 오후 1:30

**서건오** 담임목사

**나성서부교회**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1218 S. Fairfax Ave., LA, CA 90019  
T. (323)939-7323 / www.kwpcla.org

1부예배 오전 7:30 성인 EM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00 한어찬양예배 오후 2:00  
3부예배 오후 1:00 찬양예배 오후 3: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시

**박현성** 담임목사

**나성열린문교회**  
생명과 부흥이 풍성한 교회  
3251 W. 6th St., LA, CA 90020  
T.(213) 383-2600, (213) 383-2602 / laopendoor.org

1부예배 오전 8:00 대학부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 저녁 7:30(월)  
유초등부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중고등부 오전 10:45 6:00(토)

**김광삼** 담임목사

**나성제일교회**  
소망과 사랑이 넘치는 행복의 교회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

1부예배 오전 8:00 화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후 12: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성경공부 오후 7:30 (화) 오전 6:00 (토)

**정우성** 담임목사

**남가주광염교회**  
말씀과 기도로 비샤하는 은혜공동체  
1153 Valencia St., Los Angeles, CA 90015  
T.(213)598-0191

주일 예배 오전 11:00 EM,예배 주일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1:45 심야기도회 수요일 오후 7:30

**이영** 담임목사

**라성빌라델비아교회**  
하나님 중심 생활/ 말씀 중심 생활/ 교회 중심 생활  
3240 Wilshire Blvd. #265, Los Angeles, CA 90010  
T. (714) 319-2234

주일예배 오전 9:00 중,고등부 예배 주일 오전 9:00  
EM예배 주일 오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청년부 예배 주일 오후 1:00 목요일찬양(목요일) 오후 7시 30분  
교회학교 주일 오전 9:00

**김경렬** 담임목사

**산타모니카한인교회**  
죽도록 섬기는 교회  
1520 Pearl St., Santa Monica, CA 90405  
T. (310)502-9999 / www.smkcs

영어예배: 주일 오전 10:30 새벽예배: 화-금 오전 5:30  
성경공부: 주일 오전 10:30 토 오전 6:30  
주일예배: 오전 11:3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신현호** 담임목사

**새하늘 교회**  
2909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57  
Tel 213) 500-3721 / www.Newheavenchurch.com

1부예배 오전 9: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EM예배 오전 10:00

**조인수** 담임목사

**씨니사이드교회**  
하나님을 기쁘게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예수 안에서 행복한 공동체  
1183 S. Hoover St., Los Angeles, CA 90006  
T. (213) 389-0691 / F. (213) 389-0694

1부예배 오전 8:00 영어예배 오전 10: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6:00

**김요섭** 담임목사

**엘에이연합감리교회**  
100년역사의 미국 본토에 세워진 최초의 한인교회  
7400 Osage Ave., Los Angeles, CA 90045  
T. (310) 645-3698 / F. (310) 645-3060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김요섭** 담임목사

**열매교회**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3960 Wilshire Blvd. #505, Los Angeles, CA 90010  
(월서와 월토 외) T.(213)380-0071

1부예배 오전 8:30 금요일기도회 오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3부예배 오전 1:30

**정장수** 담임목사

**올림픽장로교회**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을 주는 교회 같은 말, 마음, 꿈, 열매  
3119 W. 6th St., Los Angeles, CA 90020  
T.(213)387-1700, (213)500-4737 / olympic-church.org

1부예배 오전 9:00 무료 사회복지 상담 및 대행 (정부 배네티트 전반)  
음식 보조 프로그램(Food Stamp),메디칼, 임산부 메디칼

**이경애 목사, 이은우 목사**

**요한 선교교회**  
gkal44@yahoo.com Tel: (213) 703-6863  
522 N. Hobart Blvd., Los Angeles, CA 90004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오전 6:00 (토)

**류종길** 담임목사

**임마누엘선교교회**  
행복한 성도,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1818 S. Western Ave. #200, Los Angeles, CA 90006  
T. (323) 766-9922 / www.laimch.com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일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중고등부 오전 11:00 오전 6:30 (토)

**이명수** 담임목사

**청운교회**  
선교에 흐름, 소.친 초 정신의 흐름, 바른교회관의 흐름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교육부 오전 11: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민중기** 담임목사

**충현선교교회**  
블러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818) 549-9191 / F.(818) 549-9199 / choonghyun.org

주일1부예배 오전 8:00 금요일찬양예배 오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한글학교주일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유초등부 오전 11:00  
오전 6:00 (토) 중고등부 오전 11:00

**곽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213)321-4433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수요일예배 오후 7:30

**강지원** 담임목사

**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자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



LA 동부, 팜스프링스 지역

갯스윙연합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선한목자장로교회
선포하고 가르치는교회
1816 S.Desire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626)965-3443 / F.(626)965-0404 / sunhanchurch.com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909)622-2324, F.(909)622-1480 / inlandchurch.org

팜스프링스한인감리교회
T. (760) 636-2675 / pspkmc.com

남가주새소망교회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
500 Montebello Blvd., Rosemead, CA 91770
T. (626)872-2405 교회, (503)332-1941
www.newhopechurchla.com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창대교회
하나님께 영광!
173 E.Dumas St., San Bernardino, CA 92408
T.(909) 388-2940

하나로커뮤니티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공동체
18616 E. Rorimer St., La Puente, CA 91744
T. (626) 912-6600 / www.hanarochurch.org

사우스 베이 지역

가디나선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213)365-9188

나성금란연합감리교회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310) 973-5106 / F. (310) 973-7429

대흥장로교회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세계성경장로교회
말씀과 함께 세상 속으로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257-8170

코너스톤교회
이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310)530-4040 / F.(310)530-8400 / cornerstonetn.com

나눔 장로교회
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넘치는 교회
3521 Lomita Blvd #202, Torrance, CA 90505
T. (310) 404-6219

남가주 샬롬교회
Shalom Church of Southern California
20050 S. Vermont Ave., Torrance, CA 90502
T.(310)787-1004 shalomch.org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하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951-3153 / douloschurch.com

주님세운교회
Vision 7300으로 지역사회와 세계복음화에 힘쓰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토렌스 조은교회
www.torranceccg.org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 370-5500 / F. (310) 370-2009

파사데나, 라크라센타, 라캐나다, 글렌데일, 벨리, 벤추라 지역

글렌데일한인장로교회
예수님을 붙잡고, 자라는, 건강한 교회!
4002 Verdugo Rd., Los Angeles, CA 90065
T. (323) 254-4012 / gkpchurch.com

벤츄라카운터장로교회
'예수의 심정으로 섬기는 교회' (빌1:8)
737 W. 6th St., Oxnard, CA 93030
T. (805) 483-7009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Tel. (818) 363-5887 / www.In-ChristCC.org

파사데나장로교회
새 사람, 새 교회, 새 세상을 열어가는 신앙공동체
58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1
T. (626) 795-6252 / F. (626) 584-6544

드림교회
"주의 꿈을 품고 세상의 빛으로"
130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6
T. (626) 793-0880 / F. (626) 793-6412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희철 담임목사
12631 E. Imperial Hwy., #F134
Santa Fe Springs, CA 90670

문/서/신/교에 앞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Fax. 213) 402-5136

동성혼 합법화에 불복종하라

美 흑인목회자협회장, '진정한 결혼' 운동 동참 촉구



빌 오웬 목사 ©페이스북

전미흑인목회자협의회(Coalition of African-American Pastors, CAAP) 회장인 빌 오웬 목사가 기독교인들을 향해 "불의한 법에 불복종하고, 동성결혼에 참여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오웬 목사는 14일 텍사스주 달라스에서 전통적인 결혼을 지지하는 보수 교계 지도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의 모든 영역에 속한 기독교인들이 일어나 그들의 헌법적 권리를 수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웬 목사는 또한 기자회견에 앞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우리는 사회의 모든 영역, 특별히 지도층에 있는 기독교인들과 신앙인들에게 동성간 결혼을 합법화한 불의한 법에 불복종하고, 우리의 헌법적 권리를 되찾기 위한 '진정한 결혼' 운동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텍사스 페밀리즈, 스티브 호제, 회복 치료 전문가인 데이비드 픽업 박사 등도 이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데이비드 픽업 박사는 크리스천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이 운동은 2주 전 미국의 연방대법원이 동성결혼을 합법화함으로써 우리에게서 빼앗은 권리를 되찾기 위한 것이다. 우리는 '성, 성 정체성, 결혼에 대한 세계 콘퍼런스'에 참여하는 30만 명 외에 더 많은 이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길 원한다. 종교의 권리, 표현의 자유를 비롯해 빼앗긴 것과 다름없는 우리의 권리들을 되찾기 위해 거리 행진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지난달 테네시주 멤피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오웬 목사는 "만약 대법원이 전통적인 결혼에 반하는 판결을 내릴 경우, 시민불복종 운동을 벌일 것"을 예고했다. 당시 오웬 목사는 "만약 그들이 동성결혼을 합법화할 경우, 우리는 동시에 시민권을 위해 일어날 것이다. 악법에 복종하지 않을 것이다. 정치인들과 범조인이 이 나라에서 하나님을 제거하려고 한다. 이 나라는 하나님의 원칙 위에 세워졌으며, 우리는 뒤로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휴스턴목회자연연합회의 회장인 데이비드 웰치 목사도 이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동성결혼 합법화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웰치 목사는 "하나님은 결혼이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 이루어지도록 하셨고, 연방대법원이 이를 재정의할 수 없다"면서 "우리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의 법을 인정할 것이라고 분명히 천명하며, 이 위에 굳게 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 정부가 원한다면 전국의 목회자들이 감옥에 갈 것"이라면서 "피부색, 교단, 인종을 넘어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법과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 일어설 것"이라고 말했다. 웰치 목사는 또 "목회자들이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권리를 위해 싸워야 한다"면서, 오늘날 동성결혼에 반대하는 기독교인들을 1950~1960년대 인종차별에 맞서 싸웠던 인권운동가들과 비교했다.

강혜진 기자

美 공립학교 동성애 교육 금지 백악관 청원 중

10만 명 참여하면 백악관의 '입장표명' 이 관행

미국에서 동성결혼이 합법화되면서 학교에서 동성애를 의무적으로 교육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는데, 백악관 청원 사이트에서 "공립학교에 동성애 교육을 제한해 달라"는 청원이 진행 중이다.

청원의 취지는 "공립학교 학생 모두에게 의무적으로 동성애 교육을 실시해서는 안 되며, 학생 각자의 의견에 따라 동성애 교육을 거부할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3일 시작된 이 청원에는 16일 현재 1만 5,788명이 서명을 한 것으로 나타

났다. 한인교회 교인들도 이 청원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지난 3일 시작된 이 청원운동은 한 달 내 10만 명이 서명할 경우 백악관이 공식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관행이다.

웹사이트 petitions.whitehouse.gov/petition/keep-our-kids-away-homosexual-education에 이름과 이메일 주소, 우편번호를 기입한 후 서명 버튼을 누르면 참여할 수 있다. 이후 워터피플에서 온 이메일을 받은 후 확인 버튼을 누르면 된다.

김브라이언 기자

동성혼 케이크 제작 거부한 빵집

벌금 13만 5천달러 넘어, 현재 약 35만불 모금해

동성결혼식에 사용될 케이크 제작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13만 5천 달러의 벌금을 물게 된 애런·멜리사 클라인 부부가, 두 달 동안 크라우드펀딩 사이트를 통해 약 35만 2,500달러를 모금했다. 7,651명이 모금에 참여했다.

부부가 운영 중인 빵집 '멜리사의 달콤한 케이크'가 진행한 이번 캠페인은, 지난 3년간의 개인 크라우드펀딩 중 가장 많은 모금액을 기록했다. 크라우드펀딩 사이트 '컨티뉴투티브'를 만든 제시 웰후퍼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은 소식을 전했다. 이들은 또 "주저앉지 마세요. 우리가 당신과 함께 해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길" 등 수천 개의 격려 메시지도 받았다.

오리건주 노동·기업인권국은 앞서 지난 1월 이 부부에게 '차별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했다. 7월 최종 판결에서 아바키언 국장은 클라인 부부에게 "(동성결혼 케이크 제작 요청을 거부당한) 레이첼 보우만-크라이어에게 7만5천 달러, 로벨 보우만-크라이어에게 6만 달러를 각각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아바키언 국장은 "클라인 부부는 원고

측이 동성애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종교적 신념 때문에 그들의 동성결혼식에서 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하지만, 거기엔 아무런 차이가 없다"며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이 그들의 서비스를 특정 부류의 사람들에게 부정할 수 있도록 할 경우, 성적 지향성 때문에 법적으로 사람들을 차별할 수 있다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웰후퍼는 "수많은 불만과 비난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금 캠페인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모금을 그만 끝내라고 한다. 그에 대한 우리의 응답은 항상 '당신의 우려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한다. 매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길 바란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클라인 부부는 소송에 휘말린 지난 2013년부터 빵집 영업을 중단했고, 동성애자들의 위협에 시달려 왔다. 남편 애런은 생계를 위해 쓰레기를 줍다가 팔에 부상을 입어 일을 할 수 없게 됐고, 아내 멜리사 역시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

클라인 부부는 노동·기업인권국의 결정에 불복해 항소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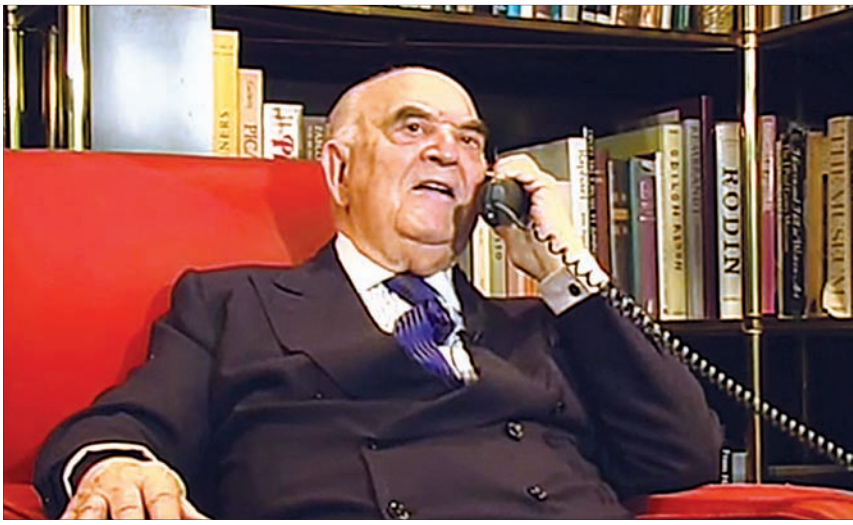
강혜진 기자



# 홀로코스트 생존자

## IS로부터 기독교인 구하려 나서

### '은혜의 빛' 갖고자 기금 조성



조지 와이엔펠드

지난 1938년 나치 홀로코스트 당시 고향인 오스트리아에서 기독교인들에 의해 적극적으로 구조됐던 한 유대인이, 이제는 IS(이슬람국가)에 의해 살해될 위기에 처한 이라크와 시리아의 2천여 명의 기독교인들을 구하기 위해 나섰다. 크리스토퍼로스트가 17일 보도했다.

95세의 영국인 조지 와이엔펠드는 신앙 때문에 대량학살당할 위기에 처해 있었던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의 자신과 매우 비슷한 상황에 처한, 이라크와 시리아의 기독교인들을 안타까워하고 있다.

와이엔펠드를 비롯한 여러 유대인들은 과거 영국 웨이커교와 플리머스 형제교회(1830년에 잉글랜드에서 시작된 엄격한 개신교 교파) 교인들의 도움으로, 나치의 마수에서 벗어나 영국으로 피신해 목숨을 건졌다.

와이엔펠드가 영국에 도착했을 당시 나이는 5살에 불과했다. 그는 자신에게 옷과 음식을 제공해준 기독교인들의 도움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 1969년에는 기사 작위를 받고 1976년에는 귀족으로 인정받았다. 그는 현재 백만장자로, 와이엔펠드&니콜슨 출판사의 소유주다.

그런 와중에 IS에 의한 이라크·시리아 기독교인 대학살 소식을 전해 들은 그는, 이제 자신이 기독교인들에게 진 빚을 갚기 위해 나섰다. 그는 와이엔펠드 기금을 설립하고 가장 먼저 2000여 명의 기독교인들을 폴란드의 안전한 곳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그는 지난 주에는 150명의 시리아 기독교인들이 폴란드로 가는 비행기를 탈 수 있도록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도 했다.

와이엔펠드는 영국의 일간지 더타임스와 인터뷰에서 "내게는 갚아야 할 은혜의 빛이 있다"면서 "2차대전 당시 웨이커교도와 다른 기독교인들이 나를 포함해 많은 유대인 아이들을 영국으로 피신시켰다. 그것은 매우 송고한 일로, 유대인들은 진정으로 감사하고 있고, 이제 위협에 처한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와이엔펠드는 2차 세계대전 발발 전야에 체코슬로바키아의 유대인 수용소에서 669명의 어린이들을 구조해 '영국의 신들러'라고 불린 니콜라스 윈턴 경에게서 이번 프로젝트의 영감을 얻었다고 말했다.

와이엔펠드기금은 난민생활을 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세계 각국의 후원을 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하다. 더 익스프레스 지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이 기금이 야지디족과 같은 소수종교인들이나 다른 무슬림들을 돕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을 거절했다. 와이엔펠드기금이 기독교인들에 대해서만 우호적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와이엔펠드는 이에 대해 "이 기금의 우선 목표는 기독교인들을 안전한 곳으로 데려오는 것"이라면서 "나는 세계를 모두 구원할 수는 없다. 만약에 무슬림들을 구원하기를 원한다면, 그것을 원하는 이들이 그 일을 하면 된다"고 말했다.

## 중 유치원 기독교 신앙 가르쳤다 폐쇄

중국의 광시(廣西) 좡족자치구 류저우(柳州)에 있는 유치원 하나가 어린이들에게 기독교를 강요했다는 이유로 폐원됐다. 중국 중신망(中新網)은 "류저우시 위펑(魚峰)구 법원이 18일 화린(華林)의 국어 유치원을 강제로 폐쇄했다"고 보도했다.

또 동 언론은 "지난 5월 23일 위펑구 교육 당국 서면으로 10일 이내 폐원할 것을 통보했지만, 유치원 측에서 이런 요구를 무시했다"고 강제집행 사유

를 설명하고, "지난 2009년 7월 설립된 이 유치원은 그동안 원생들에게 기독교적인 내용을 가르쳤다"며 "중국에서 학교 등 교육시설에서 종교적 내용을 가르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고 전했다.

한편 유치원 대표 쑨(孫) 씨는 현재 지명수배가 내려졌다. 그는 유치원에서 정부 지정 교재 대신 외국 기독교 교재를 사용하고, 교사 채용 시에도 기독교인들만 선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 창조론자들, 교회에서 청년들 떠나게 해?

창조박물관 CEO 겸 회장인 켄 함 목사가 창조론자들이 청년들을 교회로부터 떠나게 하고 있다는 기독교인들의 비판에 대해 맞대응하고 나섰다.

켄 함 목사는 "오랜 지구 창조설이나 진화론에 동조하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나와 AiG(Answers in Genesis)에 대해 청년들을 교회에서 떠나게 하고 있다며 고발했다"면서 "그들은 우리의 반과학적인 주장이 청년들에게 기독교가 반지성적이며 오늘날의 시대 상황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게 만들기 때문에 해악적이라고 비난하고 있다"고 19일 AiG 블로그에 글을 올렸다.

이어 "그들은 우리가 창세기를 믿지 않으면서 어떻게 복음서를 믿을 수 있는냐고 말하면서 아이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아이들이 자라면서 자신들이 속아왔다는 사실을 알고 결국 기독교를 거부할 것이라고 주장한다"고 말했다.

켄 함 목사는 이에 대해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이유는 기독교 변증에 대해 배우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 오늘날의 세대는 어릴 때부터 진화론을 믿도록 세뇌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켄 함 목사는 세속 미디어와 공립학교 시스템에 대해 "성경을 믿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일부 청년

사역자들과 목회자들이 이 이슈를 다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년들도 진화론적 사상으로 부터 자신들을 방어할 수 있도록 무장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AiG는 다양한 질문 공세로부터 교회들이 대답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설명했다.

켄 함 목사는 또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청년들을 설득하기 위한 변증 자료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과학이 창세기부터 시작해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확증해 주고 있다는 것을 청년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순수한 관찰과학과 역사과학의 차이점을 정확하게 지적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관찰과학은 반복적으로 실험과 관찰이 가능한 현재의 것에 대해 다루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역사과학은 반복적인 실험이나 관찰이 불가능한 과거에 대해 다루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역사과학에서는 그 시대 사람들의 믿음에 기초한 과학적 해석이 필요하다

켄 함 목사는 하나님의 진리를 진화론과 타협하려는 이들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 O.C./앨버틴 지역

결혼교회, 사모교회, 부부교회, 아버지교회  
www.GodFamily.com  
www.CMFM.org

**김철민 장로**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 (562) 483-0191 / (714) 493-0191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 예배 오후 7:30  
주일목양예배 오후 2:30 목요 성경학교 오후 7:30  
월요 선교학교 오후 7:30 금요침아예배 오후 8:00  
화요 중보예배 오후 7:30 토요 EM예배 오후 7:30

**앤드류 김 담임목사**

**UBM교회**  
3세대가 함께 성령안에서 자유롭게 예배하는교회  
1531 S.Sinclair St., Anaheim, CA 92806  
Tel: 714-635-6402, Cell:714-600-7700 www.ubmchurch.com

1부예배 오전 7:30 금요찬양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장애인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영어장년부 오전 9:30, 11:30  
한여재학원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 6:00(토)

**김영길 담임목사**

**감사한인교회**  
사랑받고 사랑하는 교회 전도와 선교에 정성을 다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 예배 오후 2:30  
2부예배 오후 12:30 유,초등부 예배 오후 12:30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설거주 예배 : 매월 4째주 주일 오후 5:30분  
대학청년예배 오후 2:30

**오병익 담임목사**

**남가주 벨엘 교회**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세우는 교회  
18523 Arline Ave., Artesia, CA 90701  
T.(714) 801-1625 kpcadavid@yahoo.com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나침반 한국교회 주일 오전 9:15  
영 유아부 오전 11:00 EM 대학부 오후 1:30  
유 초등부 오전 11:0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토 6:30

**민경엽 담임목사**

**나침반 교회**  
모이는 교회 흠여지는 교회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Lambert&Puente)  
T.(562)691-0691 F.(562)691-0698 / nachimban.org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성령집회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한글학교 오후 6:00 (금)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예배 새벽 5:30 (월-금)

**박재만 담임목사**

**남가주순복음교회**  
죽어가는 세상을 성령의 능력으로 살리는 교회  
4552 Lincoln Ave.#207, Cypress, CA 90630  
T. (714) 952-0191 / www.socalfgc.com

1부 주일예배 오전 8:00 토요새벽 오전 6:00 분당  
2부 주일 영어예배 오전 10:00 금요공부 저녁 8:00 분당  
3부 주일예배 오후 1:30

**허귀암 담임목사**

**놀워한인교회**  
Norwalk United Methodist Church Korean  
13000 San Antonio Dr., Norwalk, CA 90650  
T.(562)802-4959 C.(714)308-7038 / usa8291@gmail.com

주일예배(KM) 주일 11:00am 금요찬양예배 7:30pm  
영어예배(EM) 주일 9:00am (매월 두번째 금)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새벽예배 화-금 5:30am  
(유아처부,유초등부,중고등부) 토 6:00am

**안창훈 담임목사**

**늘푸른선교회**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808-9191 / www.missionway.org  
mcc.office.email@gmail.com

주일예배 1부 오전 8:30 주일학교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새벽예배 월-금 새벽 5:30  
3부 오전 12:20 토 새벽 6:20  
4부 오전 2:00(젊은이예배)

**고현중 담임목사**

**디사이플교회**  
17502 Daimler St., Irvine, CA 92614  
T.(949)502-4923 / www.disciplecc.org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영어예배(GLMC) 주일오후 12:3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수요일기도 수요일저녁 7:3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

**박일룡 담임목사**

**로렘장로교회**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는 교회  
1759 W. Broadway, Anaheim, CA 92804  
T. (714) 956-7640 / (714) 956-5845 / WWW.ROTHEM.COM

1부예배 오전 8:45 금요 Alpha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6:00 (월-금)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오전 6:00 (토)  
EM예배 오전 9:30

**이서 담임목사**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2536 W. Woodland Dr., Anaheim, CA 92801  
T. (714)821-9900,9901 / visioncc.org

1부예배 오전 7:15 4부 청년예배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3부예배 오전 11:00 토요 새벽 행사(바) 기도회 새벽 6:00

**김한요 담임목사**

**베렐한인교회**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주일: 10:30 AM Sunday School (All ages) 새벽예배 : 5:30 AM (화-금)  
11:45 AM Adult Service 6:30 AM (토)  
1:30 PM English Service  
금요일일 : 7:20 PM 성경 66년 특별성경공부

**이승필 담임목사**

**새로운 교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사뵈게 함으로 변화로 받아  
하느님의 사랑과 기쁨을 받고 온전하신 빛이 무한한(2) 분할(2) 주일(2)  
12432 9th. St. Garden Grove, CA 92844  
Mobile: (949) 933-7242  
Saerounchurchus@gmail.com

성경적 목회 신학대학교 학장 정승룡 박사 회장 주혁로 목사  
성경적 목회 교육원 원장 리세열 목사  
사무간사 홍지윤 전도사

**성경적목회연합회**  
"성경적 목회에 뜻을 두신 목회자께서는 누구든지 문의 바랍니다."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el. (562) 896-9191, (714) 252-9191

1부예배 오전 9:00 P-lander(Korean)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Children (1-6) 오전 11:00  
토요 연합 새벽기도회 오전 6:00 Youth(7-12) 오전 11:00  
College 오후 1:00

**이동준 담임목사**

**앨버틴 아름다운 교회**  
17702 Cowan, Irvine, CA 92614  
T. (949)250-1111 / www.beautifulch.com

주일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6:00  
중고등부 오전 11:00  
대학청년부 오후 1:30

**홍성준 담임목사**

**앨버틴 한민음교회**  
믿음으로 하나되는 교회  
18182 Culver Dr., Irvine, CA 92612  
T. (949)769-9628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 오전 9:15 중등부 오전 9:15  
3부 오전 11:30 고등부 오전 11:30  
4부 오후 2:00 한여부 오전 11:30  
KM대학청년부 오후 2:00

**권혁민 담임목사**

**앨버틴온누리교회**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949)261-9100 / vision.onnuri.org

주일예배 오후 12:3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교육부예배 오후 12:3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6:00  
California Graduate School of Theology 교수

**김용철 담임목사**

**앨버틴중앙교회**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자  
18422 Culver Dr., Irvine, CA 92612  
T. (714)309-7551  
Pastoryckim@yahoo.com

주일 인터넷 생방송들이 오전 6:30  
주일 예배: 오전 11:30 새벽예배: 오후 7:30  
토요 예배: 오후 8:30 초등부 목요예배: 오후 7:30

**우대권 담임목사**

**영광빛복음교회**  
주의 권능, 치료의 광선을 행하고 알리는 교회  
14515 Blaine Ave., Bellflower, CA 90706  
T.(213) 291-5901 / (714) 833-2568 daekwon.org

주일예배 오전 9:00 & 11:50  
새벽예배 화-토 5:30, 토 6:00  
금요예배 오후 7:30

**김민재 담임목사**

**예친교회**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친구' 공동체  
4221 Rose Dr., Yorba Linda, CA 92886(Worship Center)  
T. (714) 788-3677 / www.yechinchurch.com  
18639 Yorba Linda Bl., Yorba Linda, CA 92886 (교회 사무실)

주일1부예배 오전 9:15 유년부 초등부예배 오전 11: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영어중고등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전 11:45 한여재중고등부예배 오전 10:30  
영어주일예배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토 주일 오전 6:00

**엄영민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  
열린교회, 주는교회, 키우는교회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891-2029, 898-1068 F. 714-373-3097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45 청년부예배 오후 2:00  
3부찬양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수요일예배 오후 7:30

**남성수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영혼을 구원하며 제자삼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roc.com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주일예배 오전 09:30 토요일 오전 06:00  
3부예배 오후 11:30 금요성령예배 오후 08:00  
4부예배 오후 2:00

**한기홍 담임목사**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상급본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1부예배 오전 8:30 수요일기도회 :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 오전 5:30(월-금)  
청년예배 EM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6:00(토)  
히스패닉 예배 오후 5:00

**주혁로 담임목사**

**주님의빛교회**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 (714)252-9191 / www.lordlight.org

주일 성경이 예배 : 오전 9:00am 금요기도회 : 금요일 오후 8:00pm  
주일 한국어 예배 : 오전 11:00am 새벽기도회 : 월요일 오전 5:30am  
주일 영어 예배 : 오전 11:00am 토요일 오전 6:00am  
주일 유초등 예배 : 오전 11:00am

**임경남 담임목사**

**토기장이교회**  
1808 W.Lincoln Ave., Anaheim, CA 92801  
T.(714)234-5338 / www.pottersccc.com  
E-mail : info@Pottersccc.com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조원재 담임목사**

**하나님의은혜교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교회가 되자"  
14706 Pioneer Blvd., Norwalk, CA 90650  
T. (213) 247-7440 / godsgracechurch.org



# 2015 CONTEMPORARY CHRISTIAN MUSIC COMPETITION



## CCM ROOKIE AUDITION

CHANGE THE WORLD!

찬양사역자를 꿈꾸는 누구나 참가가 가능합니다.  
음악장르와 나이에 상관 없습니다.

08/29/2015 (SAT) 6:00 PM

Powered by One Heart

### 일시

예선: 8/15/2015(Sat) 1:00 pm  
@ One Heart Ministry / 8th Light Studio  
본선: 8/29/2015(Sat) 6:00 pm  
@ Cerritos Faith Center Chapel Hall(2F)  
1841 178th St. Artesia, CA. 90701

### 수상 특전

대상 1명(팀) - 트로피, 상금 \$1000,  
OHM소속으로 디지털싱글 (4곡기준)제작 및 사역 프로모션  
금상 1명(팀) - 트로피, 상금 \$500, 부상, 디지털 싱글 1곡 프로모션  
은상 1명(팀) - 트로피, 상금 \$300, 부상, 디지털 싱글 1곡 프로모션  
동상 1명(팀) - 트로피, 상금 \$200, 부상, 사역 프로모션  
인기상 1명(팀) - 트로피, 부상, 사역 프로모션

### 접수방법

1. 신청서 다운로드  
<https://www.facebook.com/groups/1heartministry/>
2. 접수(신청)  
email: ccmrookie@gmail.com  
우편: 1636 W. 8th st Suite204, Los Angeles, CA 90017  
전화/카카오톡: 213-347-5080  
참가비: 솔로 \$20, 듀엣 \$30, 그룹 \$50

### 문의

✉ ccmrookie@gmail.com  
☎ 213-347-5080  
f facebook.com/groups/1heartministry/

\*당일접수 가능합니다.

## 후원기독교일보



#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

##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행복한 성도들이 모인 건강한 교회-- "남가주새소망교회"



새가족 환영회를 마치고 한자리에 모인 성도들이 활짝 웃으면서 서로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다.

그곳에 가면 힘이 있다. 그곳에 가면 웃음이 있다. 그곳에 가면 밥이 너무 맛있다. 그곳에 가면 시간가는 줄 모른다. 그곳에 가면 보고 싶은 사람이 있다. 그곳에 가면 돌아가지 싫어진다. 그곳에 가면 그냥 기쁘다. 그곳에 가면 진실한 하나님의 사랑에 맡겨 취할 수 있다. 그래서 행복하다. 그래서 마음도 몸도 건강해 진다. 그곳은 바로 남가주새소망교회다.

### ◆남가주새소망교회의 시작

남가주새소망교회는 2013년 3월 3일 예수님께서 주신 마태복음 28장 19-20절의 세계 비전을 같이 하는 성도들이 캘리포니아 로즈미드에 있는 돈 보스코 하이스쿨에서 예배함으로 시작되었다.

하나님을 섬기며 행복한 삶을 살기를 갈급해 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그 후 얼마되지 않아 지금의 자체 교회자리로 옮겨와 이 지역 복음화를 위해 섬기고 있다.

또한, 그 시작 이후로 지금 이 순간에 이르기까지, 모일 때마다 예배의 감격을 통하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힘입고, 소그룹 목장 모임을 통하여 서로를 사랑함으로 회복과 새롭게 됨을 누리는 은혜를 입고 있다.

### ◆남가주새소망교회의 성장

남가주새소망교회는 어느 누구도 의도한 바없이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 나그네와도 같은 이 땅에서의 얼마 남지 않은 삶의 마지막 소원, 진정으로 '행복한 교회' 만들기, 그 간절한 소원을 위해 무릎 꿇은 눈물의 기도가 씨앗되어 싹을 틔운 것이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눈물의 기도를 들으셨고, 김성민 목사를 지명하여 남가주새소망교회 모양으로 응답하시기에 이르렀다.

김 목사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이 '행복한 교회' 방주의 목자로 부르심을 받고 난감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단 한 번도 개척교회를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다. "하나님, 어찌된 일입니까? 제가 오랜기간 살아온 터전도 아니고, 예배처소도 없고, 또 개교회를 이끌어갈만한 현실적인 능력은 더 더욱 없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라고 부르심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들을 하나 둘, 끝도 없이 나열해 가며 기도했다. 하나님, 제발 "저 좀 놔 주세요!"라고 애원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주체할 수 없이 가슴을 미어지게 하는 한 마디, '행복한 교회'가 여명을 여는 교회당 새벽 종소리처럼 '땡땡땡' 컷가에 땡땡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저들은 오직하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복한 교회'를 꿈꾸며 마지막 생명까지 주저없이 드리고 있는데, 그렇다면 나는 어떤가? 과연 나는 이제껏 하나님 앞에 생명도 아깝지 않을만큼 최선을 다했는가?"

김 목사는 할 수 없이 한 발 물러섰다. 그리고 또다시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그렇다면 예배처소를 주십시오! 그러면 제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인줄 알고 순종하며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후 채 며칠이 지나기도 전에, 이미 예배해 두셨던 '돈 보스코 하이스쿨' 예배처소로 인도하셨다.

김 목사는 이곳에서, 매주 금요일 오후가 되면 주일예배를 드리기 위해, 험한 공간에 강대상이나 음향기기 등을 설치하며 3-4시간에 걸쳐 준비해야 했다. 생전 처음 해보는 육체 노동이었다. 월요일이 지나 화요일 오전이 되면 어김없이 가슴팍이 끊어질듯 아파왔다. 3-4개월

을 그렇게 끙끙거리며 견뎌내야 했다. 그런데 그것이 은혜였다. 그 시간을 지나며 연약했던 육신은 점점 더 강건해졌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김 목사의 육신마저 훈련시키셨다.

그러나 학교 울타리 안이라는 제한 때문에, 맑갓 예배(특히 새벽예배)를 드릴 수 없는 성도들의 안타까운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아신 듯, 지금의 자체 교회로 자리를 이전해 주셨다. 그리고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 교회의 걸모습은 창고지만, 일단 안으로 들어가면 그 곳은 '곡식창고'로 변한다. 남가주새소망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부른다. 걸모습은 아무런 볼품이 없어도, 일단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어느 곳에서도 경험하기 쉽지않은 영적, 육적 안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손에 망치 든 장로, 한 손에 납비틀고 뛰는 장로, 묵묵히 버티목되기를 자처하는 초로의 증경 장로들과 권사들, 그리고 그 안에서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두 아이들처럼 뛰노는 성도들... 모두가 영의 양식도 마음껏 먹고, 육의 양식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이곳을 그들은 그들만의 '천국, 곡식창고'라고 부르며 날마다 달려간다.

### ◆남가주새소망교회의 비전

남가주새소망교회의 비전은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가 되는 것이다.

건강한 교회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받은 인생이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라는 뜻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변화를 인도하는 교회여야 한다.

남가주새소망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시기에 부족함이 없

는 교회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예배가 이루어지고, 서로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며, 온전한 마음의 헌신이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행복한 삶은 건강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할 때 가능하기도 하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인생은, 아무리 세상이 혼란스럽다 할지라도 바른 성도의 길을 걸어가며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 당연히 인생의 모든 문제도 이겨낼 수 있게된다.

남가주새소망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게 하기 위하여 훈련하는 교회다. 그 훈련과정 속에서 가정의 회복, 이웃과의 회복으로 세상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가는 교회가 되는 것이 이 교회의 또다른 목표 중의 하나이다. 또한, 교회 안에서만 믿는 사람들이

다. 그들은 노래를 잘 못한다. 그러나 그들의 찬양은 더할나위없이 은혜롭다. 이 교회 성도들만이 누리는 은혜다. 하나님의 축복이다.

또 다른 특징으로는 '토잉카 사역'이다. 어린아이에서 1세와 2세, 청장년, 노인 사역에 이르기까지 6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마치 토잉카가 차를 이끌고 가듯, 교회가 가정과 사회, 국가를 점점 토잉해 가며, 전 세계를 하나님 나라 안으로 이끌어 가는 것이다. 그렇게 하려면 교회가 먼저 말씀으로 행복하고 건강해야 한다. 그래서 남가주새소망교회는 죽기까지 '행복'하고 '건강'한 교회가 되고 싶어 한다.

### ◆남가주새소망교회의 선교

남가주새소망교회는 새로 탄생한 교회이지만 전도와 선교를 지체할 수 없기에 열심히 전도하며 선교하는 교회로 출발했다.

해외 선교는 미전도종족을 비롯한 아랍권과 유럽 선교에 중심을 두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자립교회를 돕는 것도 이 교회 선교 비전 중의 하나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 한 개교회를 통째로 사용하실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선교사들이 의지할 만한 교회, 선교사들과 가족같이 지내는 교회, 선교사들의 부모 역할을 담당하는 교회, 함께 사역지로 향하는 교회, 무릎으로 함께 하는 교회, 이것이 남가주새소망교회의 전도와 선교를 향한 기도 제목이다.

### ◆김성민 목사는 누구?

남가주새소망교회 김성민 담임목사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고 성장했다. 그리고 고등학교 때 미국으로 이민왔다. 바이올리대학교에서 선교학을 전공하고, 필라델피아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에서 공부했다. 1993년 PCA(미국 장로교, 필라델피아)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다. 30년 사역 기간 중 지난 16년간 1세 사역에 헌신해 오고 있다. 또한, 남가주새생명교회가 건강한 교회, 성도들이 행복한 믿음생활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무릎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는 신실한 주의 종이다.

### ◆위치 500 Montebello Blvd,

Rosemead CA 91770

전화 626) 872-2405

웹사이트 [www.newhopecurchia.com](http://www.newhopecurchia.com)

이영인 기자



김성민 담임목사

아니라 세상 속으로 찾아가는 교회가 되어 세상이 필요로 하는 길라잡이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맡기어 주실 때에 잘 감당하는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들이 있는 교회, 예수님을 잘 믿는 행복을 나누어 주는 교회가 되는 것이 이 교회의 목적이자 비전이다.

### ◆남가주새소망교회의 특징

남가주새소망교회의 특징은 주일예배 전 약 30분에 걸쳐 성경공부를 먼저 한다는 것이다. 대예배가 뜨겁고 은혜로운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다. 차고 넘치는 일반적인 어떤 제자훈련 프로그램보다도 강력한 영적 체험을 가져다 준다.

성가대가 따로 없다는 것도 특징 중 하나다. 각 목장별로 주일마다 돌아가며 성가대를 서기 때문이

### 대리점 모집

# 점게 하는 세제 "에미나"

**사용 효과**

- 세탁: 적은 양으로 화학 물질을 없애 주고, 유연제를 사용하지 않아도 세탁물의 냄새가 없고, 보송보송한 건강에 도움을 주는 옷으로 만들어 줍니다.(아토피, 피부병, 상처 등)
- 청소: (스팀 청소기, 걸레 등)에 사용하시면 냄새를 없애주고 마루, 가구, 가전제품, 세차 시 윤이 나고 먼지가 잘 붙지 않습니다.
- 설거지: 기름기, 탄 것이 잘 제거되고 행굼을 적게 하여 물이 절약됩니다. 그리고 설거지 한 물은 배수구를 청소할 뿐 아니라 식물에 주면 좋은 토양을 만들어 줍니다. 설거지, 청소할 때에 고무장갑을 끼지 않아도 되고, 맨손으로 하면 피부가 좋아지고, 혈액순환이 잘됩니다.
- 집안(가구, 이불, 커튼 등), 차, 사무실에 뿌리면 집안의 공기가 깨끗해지고, 친환경(곰팡이, 화학물질, 갈라방사선 절감 등)으로 인해 호흡기 질환, 비염 등에 좋습니다.
- 냄새 제거: 화장실, 애완동물, 신발, 등에 뿌리면 냄새가 없어집니다.
- 애완동물: 목욕시킬 때 행굼을 철저히 하지 않아서 쉽고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어항의 수질이 변하지 않아 냄새가 없습니다.
- 농작물, 화초 재배: 비누기루를 땅에 뿌리거나, 작물에 스프레이하거나, 세탁, 설거지 한 물을 주면 토양을 바꾸어 무공해 농작물을 재배할 뿐 아니라 병충해(진딧물)가 없고 성장이 좋아 잘 좋은 작물을 많이 생산합니다. 고추 작물을 사람 키보다 크게, 해바라기를 4m 정도 키울 수 있습니다.
- 과일, 야채 씻을 때 사용하시면 농약을 분해하며, 화학산 작용으로 신선함이 오래가고, 꽃에 뿌리면 오랫동안 시들지 않습니다.
- 양치질 할 때 극소량을 치약에 발라 사용을 하면 입안과 치아가 깨끗해지나 먹지는 마십시오.
- 차의 에어컨 필터에 뿌리면 성능이 좋아지고, 집안이나 방청고의 온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 활성산소 제거, 정전기 방지, 신선도 유지, 에너지 절감, 해충기피, 습도조절, 결로 곰팡이 방지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생활세제는 20가지가 넘습니다. 대부분이 화학세제로서 아토피, 알레르기, 피부질환의 원인이 되고, 환경을 오염시킵니다. 이 화학세제를 친환경, 무공해, 항산화 효소세제인 "에미나"가 이제 대신합니다.**

일본에서 토양 속의 이로운 균을 이용하여 효소로 제조된 "에미나"는 세탁, 설거지, 화장실, 욕조, 마루, 생활 용품, 세차, 어항, 냄세제거, 목욕, 양치질, 애완동물 관리, 화초, 텃밭가꾸기에 사용할 수 있는 다용도 무공해 친환경 세제입니다. "에미나"는 **세제구입 비용과 물을 절약** 할 뿐 아니라 **건강**을 지키는 유일한 세제입니다.

**사용 방법**

- 세탁 시에는 세탁기(40리터)에 3~5g(티스푼 1개는 5g) 정도 넣은 후 세탁, 담가 두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 집안 청소 시(냄새, 모기, 파리 제거 등) 물의 1/1000 량으로 뿌려 주시면 됩니다.
- 작물에 뿌릴(스프레이) 시 1/5,000~1/10,000 정도로 1주에 한두 번 정도, 나무는 2g 정도 땅에 묻어 주면 더 좋고, 시들은 채소, 화초는 3일 정도, 나무는 2달 정도에 효과가 있습니다. 너무 많은 양을 사용 하시면 식물이 마를 수가 있습니다.
- 아토피 피부 1/1000 정도, 아기 목욕 시에는 1/10,000 정도로 희석하여 사용합니다.

**식당 화장실 냄새제거 특효**

"에미나" 스프레이 하시면 어떤 냄새든지 쉽게 없어집니다. 손님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지독한 식당의 화장실 냄새가 없어지지 않으면 환불해 드립니다.

**【가정 필수 제품: 밥줄】**  
밥 지을 때 밥줄에 두면 밥맛이 좋아지고, 24시간 후에도 밥의 색깔이 변하지 않습니다.

**【생활 필수 제품: 생생 팩】**  
생생 비닐팩에 채소, 과일 등을 보관하면 20일이 지나도 생생합니다.

**Yirrh Healthy Living Co. 이레 건강**

833 S. Western Ave. #15 L.A, CA 90005(로테오 갤러리아)

**Tel:323)316-6815**



# Need color ?

Precise Enhancement  
Multi-function Printer



최첨단 고해상도 칼라 디지털 복합기  
칼라복사 / 칼라프린트 / 칼라스캔  
팩스/네트워크/Mobile Productivity  
최고의 인쇄 품질  
획기적인 비용절감



## Green M. Wild IMAGE SYSTEMS

Sales Representative : Eric Kim

GreenMWild@Gmail.com

TEL : 213 705 7778

교회 및 자선, 비영리단체는 특별한 혜택

Used printers trade in & purchasing



### bizhub C554e/C454e/C364e/C284e/C224e

C554e Colour B&W 55/55 ppm	C454e Colour B&W 45/45 ppm	C364e Colour B&W 36/36 ppm	C284e Colour B&W 28/28 ppm	C224e Colour B&W 22/22 ppm	Dual Scan ADF 160opm Duplex	Dual Scan ADF 80opm Simplex	Emerson Driven!	USB Print	Colour Internet Fax	Mobile Support
-------------------------------------	-------------------------------------	-------------------------------------	-------------------------------------	-------------------------------------	--------------------------------------	--------------------------------------	--------------------	--------------	---------------------------	-------------------



Simitri with Biomass \*Optional : Fax & Finisher



# 유럽 문명과 이슬람의 충돌

20세기 말에 새뮤얼 헌팅턴은 '문명의 충돌'이라는 저서에서 "이슬람의 세계가 그 폭력성과 인구 폭발로 서구 문명과 충돌을 일으킬 것"이라고 말했다. 오늘날 유럽에서 그의 예언이 증명되고 있다. 동질문화권에 서의 이동은 사회적 문제를 안겨다 주지 않았다. 지금도 유럽 안에서 유럽인 이주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다른 문화와의 만남은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다. 특히 이슬람과의 만남은 더욱 그렇다.

유럽의 이슬람 인구는 이민을 통하여 성장하였다. 유럽으로 들어오는 순수 이민자들은 1년에 약 170만 명으로 집계된다. 그러나 유럽 사람들의 평균 19%만이 이민자들이 자신의 나라에 좋은 영향을 끼친다고 답변하였다. 영국인들의 69%는 이민자가 너무 많고, 이민자를 반대한다고 답변했다. 급기야 유럽의 정치 지도자들 역시 다문화는 실패했다고 공언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2010년 10월에 "다문화 사회를 건설해 공존하자는 접근법은 완전히 실패했다"고 했다.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은 2011년 2월 10일에 '프랑스식 이슬람'이 아닌 '프랑스 안에서의 이슬람'을 반대한다고 선포했다. 영국의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는 2011년 2월 5일 독일 뮌헨에서의 국제안보회의 연설에서 "실패한 정책(다문화주의)을 접을 시간이 됐다"고 했다. 스위스 베른대의 크리스티안 요프케 교수는 "적어도 유럽에서는 이슬람교도들 때문에 다문화주의가 후퇴했다"고 발표했다.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가 다문화 실패를 선언하자, 영국의 신문 데일리익스프레스의 칼럼니스트 레오 미킨스트리는 유럽에서의 다문화 실패 원인을 4가지로 꼽았다. 첫

째로 이슬람 테러리즘, 둘째로 무슬림에 의한 성폭력, 셋째로 폭력적인 범죄, 넷째로 마약이다. 유럽 다문화주의의 실패를 영국을 중심으로 살펴 보자.

### 1. 테러리즘

영국은 유럽 테러 네트워크의 중심지가 됐다. 영국에 있는 많은 이슬람 인구는 서방을 비방하는 책을 출판하며, 영국 은행은 테러리스트에게 자금을 조달하는 용도로 이용되고 있다. 다른 나라에 있는 테러리스트들은 영국에서 안정을 찾으며, 서방에 대한 테러를 조종할 수 있다. 영국 정보부에 의하면 약 16,000명이 테러에 관계되어 있으며, 그중 약 3,000명은 알-카에다 훈련을 수료하였고, 그 중의 몇 백 명은 영국을 공격의 목표로 삼고 있다.

이러한 테러의 증가는 이슬람의 구원관과 관계가 깊다. 꾸란의 많은 구절이 알라와 이슬람을 위한 전쟁, 즉 지하드에 잠전했다가 '순교'할 경우에 천국으로 안내된다고 말하고 있다.

"그로 하여금 알라의 길에서 성전케 하여 내세를 위하여 현세의 생명을 바치도록 하라. 알라의 길에서 성전하는 자가 살해를 당하건 승리를 거두건 알라는 그에게 크나큰 보상을 주리라"(꾸란 4:74)

"알라의 길에서 순교한 자가 죽었다고 생각지 말라 그들은 알라의 양식을 먹으며 알라의 곁에 살아 있노라"(꾸란 3:169)

이처럼 이슬람의 알라는 알라와 이슬람을 위하여 싸우는 이들에게는 커다란 보상을 준다.

많은 영국 무슬림들이 시리아와 이라크에 IS(Islam State, 이슬람 국가)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투에 참여하고 있다. 현재 영국 무슬림들 가운



유해석 선교사  
FIM국제선교회 대표

데 2,000명이 IS에 참여해 싸우고 있다고 영국국회의원인 칼리드는 파악하고 있다. 그 가운데 20여 명이 죽고, 약 500명은 이미 싸우고 돌아왔다. 그들 가운데 영국에서 테러 관련자가 2013년에 25명, 2014년 1월부터 3월까지만 40명 체포됐다.

북부 잉글랜드에서 이슬람으로 개종하여 이라크에 이슬람 국가를 수립하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 니키 캠벨은 인터뷰에서 "영국은 타락했다. 따라서 나는 영국에 돌아갈 이유가 없다. 이곳에서 이슬람 국가를 세울 때까지 싸울 것이다. 만일 내가 영국으로 돌아간다면 총리가 업무를 보는 다우닝 거리와 버킹검궁에 이슬람의 검은 깃발이 휘날리게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 2. 무슬림에 의한 성폭력

성폭력에 대한 유엔의 공식 통계를 보면, 영국이 2009년 여성 인구 10만 명당 79.5명, 독일은 59.6명, 프랑스는 37.2명이 된다. 이에 반해 한국은 33.7명이다. 이처럼 영국에서 성폭력이 한국의 두 배가 넘는 것은, 무슬림 인구가 많기 때문이다.

영국 국회 청소년위원회 부대표인 Sue Berelowitz의 연구에 의하면, 2010년부터 2011년까지 14개월 동안 영국에서 2,409명의 소녀들이 아시안 조직폭력배(영국에서 아시안 조직폭력배는 무슬림 조직

폭력배를 의미한다)에 의하여 성폭력을 당했다고 보고했다. 옥스퍼드주 법원은 9명의 무슬림 조직폭력배들이 저지른 79번의 범죄 행위에 대한 재판을 열었다. 그들은 2004년부터 2012년까지 가정에 문제가 있는 11~15살의 영국 소녀들에게 마약을 복용시키고 집단성폭력을 행사했으며 성매매를 강요하였다.

무슬림들이 성폭력을 쉽게 행하는 이유는 그들의 이슬람 교리와 관계가 있다. 이슬람에서 여성은 남성과 동등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이슬람에서는 여성들에게 성욕을 감퇴시키기 위해 음핵절개수술을 하고 있다. 유니세프에 의하면 전 세계 1억 2천5백만 명의 여성들이 이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다. 영국에서는 1985년부터 이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 법이 잘 지켜지지 않아서 2003년에 더욱 강화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 동안 잉글랜드와 웨일스의 무슬림 여성 17만 명이 음핵절개수술을 받았다. 또한 현재 영국의 11세 이하 여자 어린이들 가운데 24,000 명이 수술에 노출되어 있으며, 언제 수술을 받게 될지 모른다.

### 3. 폭력적인 범죄

영국인들은 2011년 8월 런던에서 발생한 폭동으로 인하여 이슬람의 폭력성을 깨닫게 됐다. 영국 경찰 통계에 의하면, 체포된 사람들 중 55%가 아시아 무슬림이거나 흑인이었으며, 13%가 범죄 조직의 일원이었다.

1991년부터 1995년 사이에 영국 감옥에서 이슬람 인구는 40% 증가했다. 영국의 조사기관인 파수꾼에 의하면, 영국의 교도소에 있는 15~18세 죄수들 가운데 20%는 무슬림이다. 무슬림 수감자들 중 65%

이상이 18~30세의 젊은 무슬림들이었다. 1991년에는 영국 교도소에 무슬림이 1,957명 수감되어 있었다. 그러나 2013년에는 11,683명으로 증가했다. 이는 22년 만에 596% 증가한 것이다. 특히 무슬림들은 감옥에서 서로 간의 형제애와 이슬람 신앙을 굳게 다지며, 매주 금요일마다 이슬람 예배에 참석하여 꾸란을 배우고 설교를 들으며 이슬람 원리주의에 심취하고 있다. 수감자들은 이미 살인과 폭력에 익숙한 사람들이기에, 미래의 이슬람 과격화를 가속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영국에서 강력법들을 수감하고 있는 케임브리지주 교도소의 경우, 수감자 중 40%가 무슬림이다. 런던의 벨마쉬 교도소의 경우에는 전체 수감자의 3명 중 1명이 무슬림이다.

### 4. 마약

젊은 무슬림들은 학교에 무단결석하고 반달리즘·마약 밀매 등의 범죄자 및 조직폭력배로 성장했다. 브레드포드, 버밍햄 등 런던의 빈민가에는 실업, 도시 및 공동체의 부패를 경험한 젊은 무슬림들이 가족에게서 벗어나 폭력적으로 변하거나 마약을 모아 팔고 있다. 1990년대 영국 감옥에는 무슬림 수감자들이 급증했으며, 그 중 4분의 1이 마약 관련 혐의로 잡혀 온 사람들이었다. 런던의 타워 햄릿의 자치구 경찰 발표에 따르면 마약 관련 혐의를 받은 사람의 50%가 방글라데시 젊은 이들이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대마초를 이용하고 있다. 흑인과 소수민족은 전체 수감자의 42%다.

유럽은 다문화정책 실패로 인하여 국가적 혼란에 빠졌다. 그런데 이미 유럽이 실패를 선언한 다문화정책을 한국은 오늘도 과감하게 실행하고 있다.

## · 행복칼럼

# 잘못된 사고-눅10:42

우울한 사고는 우울한 인생을 만든다. 기독교인들도 신앙을 갖고 있으면서도 잘못된 사고방식의 지배를 받을 수 있다. 잘못된 사고방식은 인간의 감정과 육체, 영혼까지 좀먹으며 해를 끼친다. 우울한 인생에서 벗어나는 길은 자신이 잘못된 사고방식을 따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잘못된 생각을 쫓아 살지 않는 것이다.

우울한 사고는 일상생활의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삶속까지 깊이 해를 끼친다. 잘못된 사고방식으로는 부정적 예측, 부정적인 면의 확대, 감정에 근거한 잘못된 추리, 잘못된 의무감, 잘못된 책임감 등이다.

부정적 예측은 어떤 일이 잘못될 것이라는 느낌이 너무 강한 나머지, 그 예측을 믿어 버리는 것이다. 자신은 항상 우울할 것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며, 자신에게는 가능성이 없다고 스스로 판단한다. 그러한 예측은 자신에게 절망과 무력감을 가져다 준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전문가들이 회복될 수 있다고 말하는데도, 오직 자신의 느낌만을 확신하여 스스로 포기해 버리는 것이다.

부정적인 면의 확대는 자신의 실수를 확대경으로 보면서 미래를 최악의 결과로 유추하는 사고다. 사건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잘못을 너무나 확대하여 보기 때문에 두려움에 떨고 있다. 신앙적으로 하나님



이선이 대표  
듣는마음심리상담센터

께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신의 죄에 집착하여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면, 자신의 부정적인 면만을 크게 보는 잘못된 시각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인간의 감정과 사고는 연결고리가 되어, 감정에서 나온 잘못된 추

리를 하는 경향이 있다. 자신의 느낌을 실제 사실로 착각하여 감정이 현실을 결정하도록 내버려 둔다. 자신이 쓸모없다고 느껴지면 진짜로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용서받지 못했다는 느낌이 들면, 그 느낌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고 잘못 생각하는 것이다.

인생은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주어진 각종 의무에 의해 좌우된다. 그런데 의무감이 지나친 나머지 스트레스를 받아 우울할 수가 있다. 전문 직업을 가진 여성이 집에 와서도 완벽한 가정주부처럼 살려면 지나친 압박감에 시달릴 수 있다. 자기 한계 이상의 목표를 설정하면 심한

좌절감과 분노가 생긴다.

잘못된 의무감과 비슷한 잘못된 책임감이 있다. 책임을 져야 할 근거가 없는데도 스스로에게 책임을 부여하고, 부정적인 결과가 나오면 다 자신의 탓으로 돌린다. 자녀가 공부를 못하면 다 자신의 책임이라고 여긴다. 사실은 아이나 학교 교사에게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잘못된 사고방식 중에 부정적 예측은 긍정적 예측으로, 부정적인 면의 확대는 부정과 긍정의 균형적 시각으로, 감정에 근거한 잘못된 추리는 감정 의존에서의 탈피로, 잘못된 의무감과 책임감은 균형 잡힌 의무감과 책임감으로 우리의 사고를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콧물빼기 시럽으로 환자가 치료 받는 모습

항상 코가 막혀있고 아침이면 콧물을 너무 많이 흘렸습니다

체험사례1 9세 여아

콧물빼기를 하니 너무 많은 코가 빠져 나왔다. 환자가 침을 맞으려 하지 않아 발효 한약인 '코편해환'을 복용하면서 1주일에 두번씩 치료를 받았다. 치료 5번이 끝난 후, 환자 부모가 "이젠 저녁에 잠을 잘 때 입을 벌리지 않고 코로 숨을 쉰다"면서 너무 좋아했고, 10번이 끝나자 상태가 너무 좋아졌다.

# 비염, 축농증 지긋지긋한 콧병 치료는 콧물빼기 치료가 해답!

오랜시간 비염과 코막힘으로 냄새도 못맡는 환자

체험사례2 여대생

어릴 때 부터 잠을 잘 때 입으로 숨을쉬다 보니 아침이면 입이 말라 많은 고생을 했다. 1주일에 두 번씩 내원, 콧물빼기와 침 치료를 병행했고 6번 치료후엔 자신도 모르게 코로 숨을쉬면서 자게 됐다. 그래도 완전히 고치겠다고 15번정도 내원해 치료를 받았다. 모든 치료가 끝난 후엔 코로 숨쉬는 것이 너무 좋으면서 머리가 맑아져서 공부에 집중이 잘 된다고 했다.



# 경산한외과병원

3030W, Olympic Blvd., Suite 202, LA, CA 90006(삼호관광몰 2층) 류재규 원장경산한외과 대학교수 T.(213)380-0853



기·독·일·보와 함께하는

# 복새동

## 책으로 통하는 새로운 세상



### 신간 추천

#### 프랭크 루박의 권능의 통로

프랭크 루박 | 규장 | 272쪽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흐르는 것은 작은 물방울이 아니라 생수의 강이다. 어떤 사람이 스스로 더 이상 하나님을 막지 않을 정도로 활짝 열릴 수 있다면, 하나님의 무한한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능력과 사랑이 그를 통해 모든 방향으로 흐를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조력자,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법을 알려 준다.



#### 성경독서 가이드

전신지 | 넥서스CROSS | 296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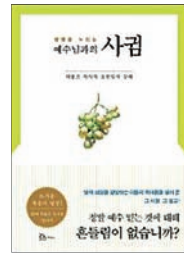
저자 전신지 선생의 "성경독서 수업안"을 모은 책이다. 1부에서 "성경독서의 가치와 방법"을, 2부에서는 8편의 "성경독서 수업안"을 논하고 있다. 물론 "성경독서 수업안 활용법"과 "각 코너별 학습법"까지 자세하게 설명되어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다. 독서지도 12년 차인 저자는 이 책을 통해 기독교적 세계관과 가치관 정립에는 성경 이상으로 안전하고 좋은 교재는 없다고 확신한다.



#### 예수님과 사귄

하용조 | 두란노 | 256쪽

이 책은 고(故) 하용조 목사 소천 4주기 기념 도서로 1987년에 선포된 요한일서 강해 설교집이다. 저자는 요한일서를 통해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루어야 할 승리가 어떤 것인지를 배울 수 있다고 말한다. 이단들의 공격적인 침투로 흔탁해진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 오래된 소원

강석진 | 홍성사 | 352쪽

이 소설은 실화를 토대로 재구성한 간증 소설이다. 독자의 편의를 위해 생소한 북한 단어를 남한 표준어로 넣고 북한 어투와 어감만을 살렸다. 이 책 내용은 제주 극동방송 특별기획 다큐드라마 <강을 건너온 복년의 나오미>로 제작·방송되기도 해 '한국기독교언론대상'(이사장 손봉호) 해외부문 특별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일평생 품어 온 '오래된 소원'을 이루고자 강을 건너 한 여인의 인생 이야기.



## REVIEW

# '마태복음 족보'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

###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 마태복음 족보, 그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과 목적

정동진 목사(울리벡신학교 학장, 생명의빛교회)가 최근 펴낸 「쓰임받음과 버림받음」(有하)의 부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 마태복음 족보'다. 즉, 마태복음 1장에 등장하는 '족보'를 분석하며, 그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찾고 있다.

정 목사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에 따라 재해석된 마태복음 족보는, 사랑의 하나님에 익숙한 오늘날 성도에게 아주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며 "하나님은 철저하게 언약에 기초해 움직이시고, 자신이 선포한 말씀에 따라 모든 것을 단호하게 결정하시는 분"이라고 했다.

저자에 따르면 이 마태복음 족보에는 전통적인 족보 기록 방법이 아닌 파격을 취한 부분이 있다. 가령,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는 표현이 그것인데, 이는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만을 언급하는 전통적인 족보 기록 방법과 달리, 여자의 이름과 두 명의 아들 이름을 기록한 것이다.

정 목사는 "성경의 역사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나열한 것이 아닌, 그것을 신앙적 관점에서 요약하고 생략하며 연대기를 바꾸기도 하면서 해석한 것"이라며 "누가복음과 비교했을 때, 마태복음이 56명 중 41명을 선택해 전체 족보를 기록한 것에



쓰임받음과 버림받음 정동진 | 有하 | 280쪽

는 하나님의 놀라운 의도와 목적이 담겨 있음이 분명하다"고 했다.

그렇다면 그 선별의 기준은 무엇이었을까? 저자는 이를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한 선택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들에 대한 고발이다.

저자는 "마태복음 주석서나 연구서, 그리고 강해서 대부분은 족보를 너무 가볍게 취급한 경향이 있다"면서 "히브리 문학은 대부분 첫절에 그 책의 의도와 목적을 담아 낸 특징이 있다. 그렇다면 마태복음의 집필 의도와 목적도 첫절에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것을 보다 분명하고 선명하게 드러내기 위한 전략이 세 개의 14대로 구성된 족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기록된 목적을 이

해해 하나님을 온전한 뜻으로 발견할 수 있다"며 "이미 학습된 선입견을 가지고 족보를 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그 선입견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족보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려는 것인가'에 귀 기울이면, 많은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대학과 대학원 시절 제자훈련에 매진하며 말씀과 영성의 균형을 늘 생각하고 있는 정 목사는 지금까지 「깊은 우상숭배 회개문」 「회개와 영성 회복」 「회개, 더 깊은 영성으로」를 출간했다. 미국 풀러신 학교에서 실천신학으로 목회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김진영 기자

조선일보, 매일경제 등에 에세이를 연재하며 교회를 넘어 세상과 소통하는 **영혼의 저널리스트**로 주목 받고 있는 소강석목사 한 편의 드라마와 같은 **삶과 신앙, 역사를 향한 뜨거운 외침**이 당신의 가슴을 뛰게 합니다.

# 꽃씨 심는 남자

소강석 에세이집

**"그는 거친 황야를 달려가는 들소처럼 가슴을 뜨겁게 하는 아성과 소망이 있다."**  
- 이어령 교수 -

**"목사, 시인, 애국자 등 그가 지닌 세 얼굴이 때로는 교차하고 때로는 번갈아 드러나면서 글 읽는 맛과 호소력을 더해준다."**  
- 이선민 조선일보 기자 -

336면 / 14,000원

샘터

**전국 기독교 및 일반 서점 절찬리 판매!**

소강석 기념식 낭송시 모음집

# 영혼의 꽃씨

을 맺어주소서

한국교회 최초 기념 시집! 목회자들에게 기념예배 참고와 교회 대표기도를 하는 중직자들에게는 기도문 작성에 큰 도움이 될 영성과 감성의 시적 언어들! 예배 인도자들이 꼭 한 번 읽어야 할 시집!

251면 / 10,000원

샘터출판사

소강석 지음



# “죽어가는 인디언들 위해 기도의 불꽃 되다”

하나님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솔직하고도 위대한 고백

데이비드 브레이너드(David Brainerd, 1718-1747)는 1718년 4월 20일 미국 코네티컷주 해담(Haddam)에서 의회 의원이던 아버지 헤제카이어 브레이너드(Hezekiah Brainerd)와 어머니 도로시 호바트(Dorothy Hobart)의 아홉 자녀 중 여섯째 아들로 태어났다.

브레이너드는 아홉 살 때 아버지가, 열네 살 되던 해에 어머니마저 세상을 떠나는 아픔을 겪는다. 그는 어머니의 죽음으로 극도의 실의와 우울증에 빠졌고, 이는 이후 그의 삶에 큰 영향을 미쳤다.

1739년 7월 12일, 브레이너드는 온전한 회심을 경험하였다. 영혼의 깊은 절망과 두려움 속에 있던 그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찾아왔고, 그의 영혼은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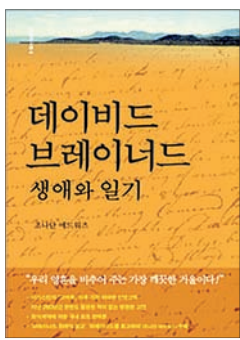
이후 1739년 9월,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 그는 예일대학에 입학했다. 이 해에 조지 핏필드가 코네티컷의 뉴헤이븐(New Haven) 지역을 6주간 순회 전도한 것을 계기로, 그의 영적 각성이 폭발했다. 브레이너드는 1740년부터 본격적으로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1741년 겨울, 대학 3학년이던 브레이너드는 분명한 폐결핵 징후에도 불구하고 1등을 한다. 그러나 바로 그 상황에서 그는 예일대학에서 제적당하는 사건을 겪는다. 그 대학 휘트니스라는 교수에 대한 친구들 간의 대화가 과장 전달되면서 벌어진 일이었다. 브레이너드에게는 들이킬 수 없는 고통과 수치의 경험이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체적 사건 당시(1741-1742년 4월)의 일기를 폐기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후 그는 인디언들의 구원에 책임을 느끼고, 그들을 위해 날마다 기도했다. 심지어 자신의 생일에도 예수님처럼 밤이 다하도록 힘써 기도했다.

인디언들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던 그는 1743년 결국 인디언 선교사가 됐다. 사실 그는 자신이 “너무도 연약하고 의지력도 없고 무가치하여, 선교 사역을 감당하기에는 도무지 격에 맞지 않다”고 고백했다. 그러나 그는 인디언의 말을 배우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했으며, 온 밤을 깨어 기도했고, 믿음의 친구들과 이웃 전도자를 위해 중보기도를 했다. 무엇보다 자기에게 맡겨진 양들을 위해 며칠이고 기도에만 열중하기도 했다.

첫 선교지인 카우나우믹(Kaunauweek)에서 그는 옥수수 죽을 먹고 쥘더미 속에서 잤으며, 숲속에서 길을 잃어버린 일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는 인간적으로 두려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생애와 일기  
조나단 에드워즈  
복있는 사람 | 318쪽

움과 고통의 연속이었던 선교지 생활을 잘 이겨내면서 극복해 나갔다.

그러나 1746년 가을, 그는 학생 시절부터 그를 괴롭혔던 결핵 때문에 선교지를 떠나야 했다. 12개월 동안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침대에 누워 지내다, 1747년 10월 9일 29세의 젊은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그는 갔으나, 그의 헌신과 기도의 삶은 한 권의 일기로 남아 영원한 감동을 주고 있다.

이 책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생애와 일기(The Life and Diary of David)》는 조나단 에드워즈의 의도를 따른 ‘완역판’이다. 에드워즈는 이 책을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했다. 제1부는 브레이너드의 일기, 제2부는 브레이너드의 선교 일지, 그리고 제3부는 브레이너드의 삶을 회고하는 에드워즈의 설교다.

제1부 ‘일기’는 브레이너드의 청소년 시절 영적 발돋움, 그리고 1739년 회심 사건부터 1747년 폐결핵으로 이 땅을 떠나기까지 기록한 개인적인 일기이다. 에드워즈는 이 일기 곳곳에 자신의 코멘트를 넣고 연대순으로 제8부로 구성, 독자들이 브레이너드의 일기에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편집했다.

제2부 ‘저널’은 브레이너드가 자신을 선교사로 파송한 스코틀랜드 복음전도협회에 보낸 사역 보고서로 작성한 두 편의 선교 일지다. 1부 일기와는 다른 객관적인 보고서로, 그 가치와 감동이 인정돼 당시 <놀라운 은혜의 역사, 그 시작과 진행>이라는 제목을 달고 따로 단행본으로 출간되기도 했다. 브레이너드의 삶과 사역 뿐 아니라, 당대 인디언 선교사역의 구체적인 현장을 조명해 주는 귀한 자료로서의 가치가 있다.

제3부 ‘부록’은 브레이너드의 장례식 때 에드워즈가 전한 ‘장례식 설교’와, 브레이너드의 삶을 회고하며 참된 신앙이란 무엇인지를 논한 ‘브레이너드를 회고하며’라는 설교 두 편이 실려 있다.

특히 ‘브레이너드를 회고하며’는 이안 머레이(Iain H. Murray)가 자

신의 에드워즈 전기 <조나단 에드워즈 삶과 신앙>에서 “후대의 일부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생애와 일기> 판본들이 이 설교를 뺐 것은 에드워즈의 의도를 심각하게 훼손한 큰 잘못”이라고 지적할 만큼 중요한 설교로서, 에드워즈가 이 책을 2년에 걸쳐 정리하고 펴낸 뜻과 깊이 연관된 글이다.

왜 우리는 브레이너드의 일기를 읽어야 하는가? 브레이너드는 목회자, 선교사, 사역자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따르고 회중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역자의 참된 본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 기록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솔직하고도 위대한 고백록이다.

브레이너드의 삶은 후세에 수많은 사람의 생애를 뒤흔들어 놓았다. 1740년대 미국을 휩쓴 대각성운동의 주도자 조나단 에드워즈에게 깊은 감동을 준 것부터,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리의 삶에도 큰 전환점을 마련해줬다. 또 위대한 선교사 윌리엄 캐리(William Carey)와 헨리 마틴(Henry Martyn), 20세기 선교사 짐 엘리엇(Jim Elliot)의 마음까지 움직여 복음 전도 사역에 중사하도록 하였다.

그의 어떤 점이 이 세기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을 움직였을까? 모든 생명을 내걸고 하나님 앞에 헌신한 그의 삶 자체라 하겠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말하기를, “브레이너드 목사의 삶과 죽음은 우리로 하여금 마침내 이르게 될 그 복된 결말을 소망하며 거룩한 삶의 길을 가기 위해 힘써 애쓰도록 격려한다”고 했다. 존 웨슬리는 “주님의 일이 쇠퇴한 곳에 주님의 일을 다시 부흥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모든 설교자에게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생애와 일기>를 주의 깊게 읽도록 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는 교회사에서 ‘인디언 선교에 생애를 바친 미국 식민지 시대의 한 선교사로 기억되고 있다. 특히 그는 일기를 통해 많은 이에게 도전을 주었다. 영국과 미국의 복음주의 목회자들과 교인들은 이 일기를 사랑하고 즐겨 읽었다.

이 일기의 일부는 임종 직전에 브레이너드 자신이 편집했고, 일부는 조나단 에드워즈에 의해 첨가돼 1749년 출간됐다. 모든 생명을 내걸고 하나님 앞에 헌신한 브레이너드의 삶은, 후세에 수많은 사람의 생애를 뒤흔들어 놓았다.

송광택 목사  
한국교회독서문화연구회 대표

# 본회퍼, 테겔 감옥에서 쓴 자전적 소설

다음 세대 위한 신학적 주제와 시대적 담론 다루



본회퍼의 선데이 디트리히 본회퍼 샘솟는 기쁨 | 216쪽

짧은 생 그 자체로 복음을 증거하면서도 오늘날 신학도의 머리를 싸매게 만드는 많은 역작을 남긴 이 신학자는, 진정 불세출의 ‘천재’였을까. 그가 소설까지 남긴 것을 보면, 충분히 고개를 끄덕일 것이다.

<본회퍼의 선데이(원제 Sonntag)>는 디트리히 본회퍼가 사형당하기 2년 전 테겔 감옥에서 쓴 자전적 소설이다. 주인공인 브레이크 여사가 보는 교회와 설교,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균형 있게 묘사하고, 당대 중산층 두 가정의 자녀들이 성장하

면서 공동체를 위해 선한 영향력을 미치려는 모습들을 그렸다. 다음 세대를 위한 신학적 주제와 시대적 담론도 다루고 있다.

이렇듯 본회퍼가 감옥에서 다양한 글쓰기를 시도한 이유는, 교도관의 검열을 피해 자신의 생각을 간접적으로 전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동기처럼, 소설은 읽으면서 독자들을 생각에 잠기게 만들고 재미보다 의미에 좀 더 집중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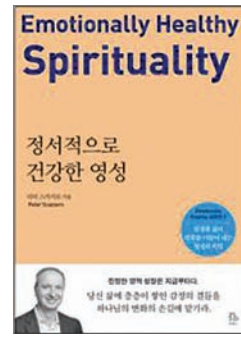
서거 70년을 맞은 본회퍼의 작품들은 최근 몇년간 국내에서 붐을 일으키며 잇따라 발간되고 있다. 앞서 전기 <디트리히 본회퍼: 신학자-그리스도인-동시대인>과 감옥에서 약혼자에게 보낸 편지인 <옥중연서(이상 복있는사람)>가 나왔다.

이후 올해 초에는 1년 365일 묵상할 수 있는 <본회퍼와 함께하는 하루(홍성사)>와 <본회퍼 묵상집(조선교회)>, ‘행동하는 시리츠’ 3권 <교회가 세상에 소망을 말할 수 있을까?(좋은씨앗)> 등이 잇따라 발간되기도 했다.

이대웅 기자

# 진정한 삶으로의 변화 위한 영성 비밀

인생을 바꿀 만한 하나님과의 진짜 만남을 위한 책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 피터 스키자로 두란노 | 328쪽

예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도 변하지 않았다는 고통스러운 사실을 인정하라. 우리의 많은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조금도 건드려지지 않은 채로 남아 있다. 우리의 삶과 과정과 교회에 치명적이다. 감정적인 측면이 다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느 순간 우리의 미래성이 무너지기 시작할 것이다. ‘홀륭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외양 아래 감

춰진 참모습을 보기 전까지는 진정한 영적 성장은 없다. 이 책은 저자와 뉴 라이프 펠로십 성도들이 기도하고 훈련하고 적용하고 살아낸 기록이다. 예수님과 그의 더 깊은 관계로 초창하는 길라잡이 역할을 한다.

이 책은 26년간 담임목사로 섬기며 하나님의 일에 돌진했던 저자 자신에게 일어난 이야기를 고통스럽게 대면한 결과이다. 상처투성이 가족 속에서 자란 과거의 문제, 자신의 감정의 문제들을 덮어두고 억누른 채 오직 영혼 구원과 교회 성장을 위해 달려온 저자가, 교회 분열과 아내의 충격적인 선언으로 인해 자신의 감정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면서 회복이 시작되는 이야기다. 이런 감정의 문제를 정직하게 직면하면서, 수도사적인 영적 훈련을 하는 관상적 영성 훈련을 통해서, 저자의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나날이 성장한 경험을 담은 책이다.

이영인 기자

**최첨단 3D 전신 스캔 검사**

다나병원의 3D 전신 스캔 종합검사는 신체내 투입이나 통증없이 신속정확하며 과학적인 방법으로 뇌, 심장, 혈관, 간, 위, 척추 등 전신의 건강 상태 뿐만 아니라 위험 요소들을 미리 측정하여 예방도 가능하게 하는, 알약이 경량하지 못한 전신기능의 검사를 합니다.

**유전자 생약치료** 2000여개의 유전자를 분석하여 질병위험과 전반적인 건강상태 상담, BAM(bio active molecule: 생리활성물질)으로 치료를 합니다.

**다나병원** 다나병원은 Well-Being과 Aging Care를 목표로 통합의학을 지향합니다. 621 S. Virgil Ave., #250, Los Angeles, CA 90005 / T. 213.487.0691

**심성통운 SAMSUNG SHIPPING**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저희 "삼성통운"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한번 클릭으로 이사사의 모든 것을 해결 [www.samsungmoving.com](http://www.samsungmoving.com)

**문의 1-877-580-2424** **사무소 (310) 538-3333** **LA (323) 582-2424** **OC (714) 777-7799**

SAMSUNG SHIPPING, INC.  
samsungmoving@gmail.com

- 주정부 허가: MTR-190586
- US - DOT: 1847208 ICC - MC: 669029
- Fully Insured & Bonded

**이사의 명가(名家) 가주 삼성 통운(주)**

**귀국이사**

- 집안 내에서 손님 입회하에 한국식 포장 서비스
- 포장 재료 무료 제공
- 한국에서 완벽한 가구 set up 과 쓰레기 수거
- 귀국자동차 운송
- 새 물품 구입 시 Sales tax return 혜택
- 무료 창고 보관 2개월 서비스

**시내이사**

- 한국식 포장 이사 전문 (한국인)
- 피아노, 돌 침대 취급 전문
- 포장 box 대여 및 판매
- 사무실, 공장 이사
- 창고 보관 가능

**자동차운송**

- 미 전지역 모든 승용차 운송 (7~10일 소요)
- 한국 및 동남아 자동차 운송 전문
- 초 저가 차량 운송

**타주이사**

- 무료 창고 보관 1개월 서비스
- 미국 내 전지역 정기 운행
- 샌프란 시스코, 베가스, 피닉스 당일 출발
- 씨애틀, 달라스, 아틀란타, 뉴저지 월2~3회 정기 운행

**해외이사**

- 하와이, 괌, 알라스카
- 중국, 일본, 남미
- 캐나다(밴쿠버, 토론토)
- 전 세계 선교사 이사 화물 전문







## Korean American Youth and Young Adults Show Activism for North Korea

BY SHELBY MOON

Some 80 Korean American high school and college students gathered at the nation's capital for Korean Church Coalition for North Korea Freedom (KCC)'s annual summer mission and internship conference from July 13 to 16. The conference comprised of various training sessions which included spiritual training and becoming more informed on the issues surrounding North Korea and human rights.

Each morning began with devotionals and each night ended with worship, with messages preached by pastors volunteering for the conference.

"It's real. It's going on," said Pastor Dan Nam in opening remarks for the conference, referring to the images of suffering in North Korea that are exposed through the media.

"There's people out there that need a voice. There are Christians out there that are suffering," Nam continued. "God picked you this year to be that voice. I want you to remember that -- this is not just something you're doing, but God has chosen you to go and be that voice."

During the conference, attendees were also able to make Congressional office visits to ask the Congressmen of their home regions to join them in being "a voice for the voiceless for our suffering brothers and sisters in North Korea," in the words of Sam Kim, the executive director of KCC.



Some 80 Korean American youth and young adults attended KCC's summer mission and internship conference this year at Washington, D.C.

Attendees also participated in a vigil at La Fayette Park, a walkathon on Pennsylvania Ave., and a rally at the West Lawn in front of the Capitol.

In particular, attendees pushed for the passing of H.R. 757 North Korea Sanctions Act; the implementation of the North Korean Refugee Adoption Act of 2011; stopping repatriation of North Korean refugees living in China; stopping forced marriages and trafficking of women and orphans in China; allowing North Korean orphans enter the U.S. for adoption; and securing religious freedom in North Korea, among other requests, through the rallies, marches, and Congressional visits.

KCC is a non-profit, religious coalition of some 2,500 Korean American pastors and their churches. The coalition, which was founded in 2004, has focused on activism for the restoration of human rights in North Korea. Representatives of the coalition are located in every major U.S. city as well as in South Korea.

## Korean Urban Ministry Celebrates Anniversary by Giving Scholarships to Korean American Youth

BY JUNHYEONG KIM

It's been 16 years since the Well Mission--a Korean urban ministry in Los Angeles--first began serving the homeless and the poor with love.

On July 18, the Well Mission hosted a 16th anniversary thanksgiving worship service, and gave scholarships of \$300 each to 16 Korean high school students.

For the past ten years, the Well Mission leaders acted as the caregivers of 20 Korean foster children, but currently, they are unable to do so. Normally, foster families are required to let their foster children go when they reach the age of 18, but the leaders of the Well Mission failed to follow this rule.

"I couldn't tell the kids, 'Now that you're 18, it's time to leave,'" said Hannah Na, one of the mission-

aries of the Well Mission. "How would we expect them to live? We wanted to take care of them until they're fully independent and self-sufficient."

The Well Mission decided they could no longer continue the fostering ministry after this incident with the 20 foster children they raised as their own, and these 20 went on to work in businesses, the military, and to study in college.

While the Well Mission leaders were trying to overcome their disappointment in having to stop their fostering ministry, they started to embrace a new vision to replace the fostering ministry with a scholarship for Korean youth. They wanted to give scholarships to 16 students to commemorate their 16th anniversary, but they were faced with a problem: they had no funds to provide scholar-

ships.

One of the financial supporters of the Well Mission heard about the issue, and single-handedly provided enough money to provide scholarships to 10 students. The Well Mission leaders were then able to fill the rest to make a total of \$4,800. It was a miracle.

Meanwhile, the 16th anniversary worship featured numerous worship choirs, decorating the service with beautiful music. Joo-Ok Na, the president of the Well Mission, read 2 Corinthians 4:5 to those who gathered, after which Pastor Jun-Sik Kim of Shalom Church of Southern California preached a message titled, "We do it for Jesus."

Those who gathered also shared in a time of fellowship over lunch prepared by the congregants of Shalom Church, located in Torrance.

## Interviews with Asian American Church Pastors, XV: The Church Is About "Jesus First"

BY RACHAEL LEE

Pastor Paul Kim is the senior pastor of Redeemer Presbyterian Church, located in San Diego, CA. Though Redeemer is a multi-ethnic, multi-generational church with over 1,000 regular members, Kim himself comes from the Korean immigrant church background.

"I grew up in the Korean church, and I was a part of the Korean church world," Kim said, adding that his parents also are devout Christians, and that his father "reads the entire Bible once per month." Kim served at Korean Central Presbyterian Church in San Francisco during his college years and as an intern pastor for two years while in seminary. Kim also served at Cerritos Presbyterian Church for a few years with his wife.

Kim is one of the few notable Korean American pastors who serve as the senior pastor of a multi-ethnic church, along with Pastor Eugene Cho, who leads Quest Church in Seattle. Many may view Kim's or Cho's ministry as a "successful" one, as the number of Korean American pastors leading multi-ethnic congregations are few in number, and especially since both of their congregations are relatively large. Kim's church, in particular, has ties with Redeemer Presbyterian Church in New York, which is led by Pastor Timothy Keller, an internationally known preacher and author.

However, Kim says that his motivation for transitioning into and leading a multi-ethnic congregation was not out of a thought that a multi-ethnic context was somehow more ideal, more effective, or more appropriate than that of a Korean American or Korean immigrant church context. On the contrary, Kim simply believed that this was the calling and the vision that God had given him specifically.

Though Kim came from the Korean immigrant church background, he felt that the ministry he

would be able to do in that context was limited due to the fact that he isn't a fluent Korean speaker.

"I always had a positive experience in the Korean church," Kim said. "But my Korean has always been limited. I was never one who could fully understand Korean, nor speak it fluently, so it was difficult for me to swim in that field." At the time, Kim had felt that his lack of fluency in the Korean language was a limitation, but it seems that perhaps God simply had a different plan for his ministry.

While serving in the Korean church, Kim said he felt that God was calling him into a multi-ethnic context, as non-Korean non-believers were brought to Kim's attention.

**"Whatever God is doing in each church is a wonderful thing, because the church is Jesus' church."**

"While my wife and I were serving at the college ministry in Cerritos Presbyterian Church, some people would approach us saying that they wanted to check out church, but they were neither Christian nor Korean," Kim said. "One example of that was one of our neighbors in our apartment building. And because we were going to a Korean church, we weren't sure if they would feel comfortable coming to our church."

"Since then, we've had a vision for a multi-ethnic and multi-generational church, and we wanted to pursue planting a church in which anyone in the community can come," Kim said.

Eventually, Kim planted a church in San Diego in 2003, which was then a congregation of about 50 people from pan-Asian and white ethnic backgrounds. This church plant eventually became Harbor

Carmel Valley Church, which initially consisted mostly of families, but grew to two campuses with three services.

A few years thereafter, Harbor Carmel Valley began planning with another church, which was called North Coast Presbyterian Church at the time, on combining the two churches into one congregation.

"At the time, Harbor Carmel Valley was about 500 people that were mostly young, pan-Asian, and white, while North Coast had around 200 people, which were mostly white with older members," Kim described. "And after two years of praying and discussing, we combined and became Redeemer Presbyterian Church." This new, combined congregation is now about a year and a half old.

Kim shared that Redeemer has had an exciting journey, but that there are also challenges that the church faces as a multi-ethnic and multi-generational church--mainly, that people tend to remain within their comfortable groups.

"I saw that coming to a church like this would be really challenging at first for people who aren't used to this kind of environment, or for people who aren't used to having friends that aren't like themselves," Kim said. "It's difficult for the Korean American college students or young adults who are comfortable with each other to break out of that circle, and it's difficult for the white, 60-year-old to engage with a young Chinese American family."

Redeemer has been trying to address this obstacle in a number of ways. Kim and the church leadership have been encouraging members to be humble toward one another with an open mindset to learn.

"We openly discuss the challenges of being a multi-ethnic church," Kim said. "We try to emphasize that we need to be humble and to learn from one another, and not to judge each other. We encourage the members to open themselves



Pastor Paul Kim is the lead pastor of Redeemer Presbyterian Church.

up, and not to just remain in their comfort zones -- there's so much we can learn from one another. And having that open discussion probably makes it more intentional in the church."

The leaders have also been trying to create opportunities for members to build relationships with one another. Kim mentioned a women's tea event that Redeemer recently hosted, during which over a hundred women from their twenties to their eighties attended and got to know members that they may not have been able to connect with before.

Finally, the leadership emphasize that, first and foremost, the identity of the church is that of Jesus Christ and the gospel.

"Yes, we are a multi-ethnic church, but here, it's about Jesus first," Kim said. "It's about the gospel as being central, and how the gospel makes us a true community."

"Ultimately, I think there are different places for different kinds of churches. If you're a pastor, don't think that your church has to look like this or that," Kim said. "Whatever God is doing in each church

is a wonderful thing, because the church is Jesus' church, and there is a need for all kinds of different churches for different communities and people. These are just different snapshots of the body of Christ. And at the end of the day, it's just about worshipping Jesus and telling people about Jesus."

"Even for Redeemer, I'm very thankful for what God has done here -- I don't think I could've orchestrated or made up this story," he continued. "And we want to be careful not to paint a picture and say, this is what success looks like, from the size to the look of the church. Our vision is to be a church that's centered on the gospel that renews everything. And from there, it's not about having these great programs, or gaining attention from the public. We simply want to be faithful to what we are called to do, and remain prayerful, and see where God takes us."

*This is one in a series of interviews with pastors who either serve in English ministry (EM) or have a heart for intergenerational relationships within the Asian American church.*



100% 천연성분

# 당뇨! 당뇨는 원인치료가 해답입니다!

당뇨! 원인 기능 개선제

# PRO-Z GOLD



Special Price

✓ 미국 독점 출시 기념 파격 세일

송해선생님이 자신있게 추천하는 프로지골드 1병 \$89 + tax 3병 \$249 + tax 6병 \$474 + tax

##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이 강화된 PRO-Z GOLD

### 당뇨병의 원인?

혈액 속의 포도당 수치, 즉 혈당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상태가 지속할 때를 말합니다. 음식을 섭취 후 혈액으로 들어온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췌장 베타세포에서 나오는 인슐린이란 호르몬이 필수입니다. 만약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분비된 인슐린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 당뇨병의 치료방법은 있는가?

당뇨병은 조절은 할 수 있으나 완치는 불가능하며 단지 당뇨병의 진행을 정지시키고, 동시에 당뇨로 인한 합병증의 발생 및 진전을 예방하는 것이 일반론입니다. 현재 당뇨 환자들이 주로 복용하는 당뇨약들은 천연물질이 아닌 화학물질로 장기 복용 시 심각한 부작용(심장부종, 신장부종, 간독성)과 방광암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유수의 대학의 연구팀들의 연구결과로 드러났습니다.

송문기 박사팀은 근육세포의 당대사와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반응도에 깊게 관여 되는 사실에 주목하여, 아연에 CHP를 첨가한 신합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PRO-Z)를 개발했습니다. 정부 연방 병원인 US V.A. Hospital에서 47명의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12주동안 프로지(PRO-Z)를 복용한 결과 당화혈색소(HbA1c)가 평균 22%감소, 70% 환자에서 혈당 수치가 29%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Source: Metabolism, Vol 47, No 1(January),1998: pp 39-43 미국특허 # 5,411,748 and #5,997,908

### 당뇨병 회복의 새로운 메카니즘 '프로지'

'프로지'는 혈당강화제와는 달리 당뇨의 근본원인(인슐린 저항성 및 췌장 베타세포 파괴에 의한 인슐린 분비기능저하)을 해결하는 메카니즘입니다. 당뇨병의 원인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면역력이 저하됨으로써 생긴 결과입니다.

아연은 면역력 강화에 중요한 필수미네랄입니다. 포도당을 세포까지 운반하는 역할을 인슐린이 하는데, 당뇨 환자들은 혈액 속에 여러 가지 요인(비만, 과음, 운동부족, 스트레스)에 의해 인슐린 반응도가 낮고, 인슐린 저항성이 높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IDE(Insulin Degradation Enzyme)라는 소화효소가 필수적인데 이 소화효소의 주성분이 아연이며, 아연은 췌장 베타세포에서 인슐린 저장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신 합성물질(CHP Plus Zinc) 프로지는 우리 몸속에서 근육과 지방세포로 아연을 운반하여 아연의 신진대사 활성화를 통한 인슐린수용체의 활성화 및 인슐린 수용체의 생성을 촉진함으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합니다.

### 아연이 당대사와 밀접하다면, 왜 아연으로 만든 당뇨약은 없나요?

아연은 특성상 섭취 시 인체 내에 머무르는 시간이 짧고 흡수율이 떨어진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음식에도 굴이나 소고기 등에 아연이 존재하지만, 섭취 후 3~4시간이면 소변으로 배출되고 몸에 흡수가 안 되는 것입니다. 아연이 췌장 세포 기능 복원이나, 근육세포의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해당 세포내 아연흡수율이 획기적으로 증가하여야 성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계는 지금까지 아연 흡수율 제고 물질이나 방법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송문기 박사의 신합성물질 '프로지'는 동물의 전립선에서 추출한 물질(CHP)을 아연을 킬레이트시킴으로써 아연이 일정시간 인체에 머물며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당의 대사를 도와 몸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송문기 박사와 연구팀은 한국인 최초로 미 정부 지원으로 이 기술을 개발해 특허를 취득하고 당뇨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송문기 박사

UCLA 의과대학 연구 교수  
미, 재향군인 병원, 수석 연구원  
세계 3대 인명사전 Marquis Who's who에 등재  
40년간 당뇨연구에 매진한 대한민국 대표 과학자

프로지를 개발한 송문기 박사는 인류 복지 건강에 위해가 되는 당뇨, 비만, 알츠하이머(치매)의 두려움에서 벗어나도록 40여 년간을 연구에 매진했습니다. 그는 하와이대학, UCLA 대학교수 미 재향군인병원(US VA Hospital)에서 근무했으며, 가장 시급한 당뇨병을 치료할 목적으로 미국 연방식품의약품(FDA)로부터 신약 임상시험을 진행중입니다. 그 전에 FDA의 독성 TEST, 국제규격에 부합되는 임상 TEST를 거쳐 FDA로부터 신약판매 전에 건강기능식품(PRO-Z)으로 허가를 받아 당뇨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당뇨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당뇨원인 기능개선제' 프로지를 출시했습니다. 송문기 박사는 체내 아연 대사와 관련한 각종 연구성과를 통해 세계 3대 100인 인명사전 중 가장 권위 있는 Marquis Who's Who에 등재된 인물입니다. 현재 세계적인 과학지인 NATURE 등 세계 유수 연구 관련 기관의 심사관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 판매점

세크라멘토	916.363.2378	Smile Home Shopping
하와이	808.947.8086	Herb Land
달라스	972.620.2900	Royal Health Department
시애틀	206.229.5466	Health Village



## PRO-Z

한국 50만명 판매 SALE 1병 \$69 + tax 3병 \$179 + tax 6병 \$342 + tax

타주 대리점 및 프로지셀러모집중

# 213.434.1170

www.prozusa.com prozusa1@gmail.com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PRO-Z USA Inc.

미국 공식 판매처